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眞實한新聞

공무원淸廉度 9개基準 마련

政府 民願부서는 反映비율 높이기로

家庭불화·異性관계도 참작

5級이하 秀·優·良·可로

4級이상 上·中·下표서

9개基準

◇사치性向 ◇金錢관계 복잡성
◇射倖性 ◇利權업무 편중경향
◇청탁빈도 ◇民怨 ◇異性관계
◇家庭불화 ◇이웃과의 관계등

정부는 공무원의 승진등 評定에 淸廉度를 반영키로한 改正국가공무원법에 따라 請託의 빈도, 사치성향, 金錢관계, 異性관계, 이웃관계등 9가지의 청렴도를 정하는 공무원人사처리지침을 마련, 11일 各部處에 시달했다.

9가지 淸廉度기준은 ▲신분에 맞지않는사치성향 ▲금전관계의 복잡성 ▲射倖性 ▲利權업무편중경향 ▲請託의빈도 ▲民怨 ▲異性관계의복잡성 ▲가정내의不和 ▲이웃과의관계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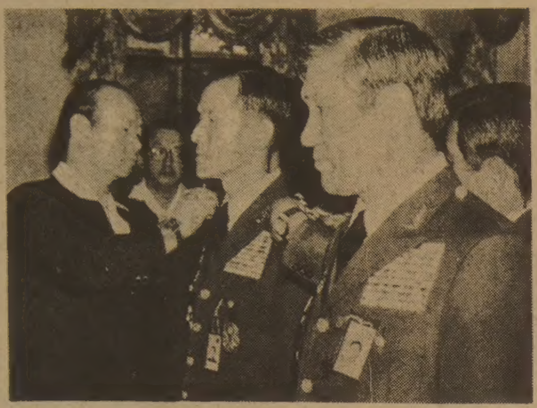
이날 시달된 공무원人事처리지침에의하면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5級이하(종전3級乙)는 모든 기준에서 다른공무원에게 모범이 될경우 秀, 청렴도에 문제가없는 사람은 優, 1개의 기준에 위반되는 사람은 良, 2개이상 위반하는 사람은 可로 각각 評定, 減點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評定된 淸廉度는 점수제로하는 5級이하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1백점만점)에 5~10점까지 배점하고 4급(종전의3甲)이상 高位職공무원은 人事評定書의 인격평정난에 上·中·下로 표시키로 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시행령은 근무평정에서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등 독립평정요소와같이 청렴도도 별도의項目을두어 심사하는 독립평정제도를 채택, 청렴도가승진이나 補職에중요한 요소가되게하고있다.

인사처리지침은 업무부서별성격에따라 청렴도등 評定요소를 반영함에있어서 우수를두게해 민원사무가많은부서는 청렴도를 반영하는비율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한편 청렴도評定시기는 4급이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1회씩, 5급이하는 매년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全대통령에 進級신고 車圭憲·盧泰愚 大將

全斗煥 대통령은 11일상오 청와대에서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車圭憲 盧泰愚 육군대장으로 부터 진급신고를받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장관 李熺性육군참모총장이 배석했다.

런던市全域 최악의暴動

약탈·放火등 恐怖의 도시로

1개월간 行進·集會 禁止令

버밍햄등 4都市에도 번져

【런던11日聯合】영국을휩쓸고있는 2차대전이래 최악의 인종폭동은 폭동발발 8일째인 11일 마침내 런던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 영국제2의 대도시인 버밍햄과 맨체스터 세필드 노팅검등 4개의 폭부도시에서 연달아 흑인및 아시아계 폭도들의 폭동이 발생했다. 특히 런던은 폭동이 가장 극심해 폭도들의 약탈과 파괴·방화등으로 전장을 방불케하는 공포의 도시로 화했다.

일리엄·화이틀로내상은 인종폭동이 1주를 넘기고 확대일로로 악화됨에 따라 11일새벽6시(현지시간)를 기해 1개월간 런던전역에서 행진과 집회등을 전면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수천명의 흑백인및 아시아계 폭도들은11일새벽 브릭스턴 배터시 스트레텀 액톤 치스윅델 스턴 해크니 윌덤스토우 스토크 뉴잉턴등 런던의동서남북 12개區에서 폭동을 일으켜 주택·상점·차량등을 닥치는대로 파괴·약탈·방화하는 한편 고층아파트 한채와 2개소방서에도 불을 질렀으며 시가지에서 화염병과 벽돌등을 던지며 경찰과 유혈충돌을 벌였다.

경찰은 소방관들이 런던전역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밝히고 런던에서만도경찰관 40여명이 부상하고 2백50여명의 폭도들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런던동부의 월덤스토우區에서는 폭도들이 경찰에 도끼를 휘둘렀으며 댈스턴에서는 약60여명의 흑인청년들이 한 젊은 어머니와 그의 18개월된 아기를 발로짓밟기도했다.

폭동이 가장극심한 런던외에 지난주 연3일간 인종폭동이 발발,일단진정됐던 리버풀에서도 이날 또다시 폭동이 발생했으며 이밖에 적어도 영국전역 6개도시에서 처음으로 폭동이일어나 영국전역을 인종폭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폭동은 대부분 시내 중심부에서 일어나 번화가의 철시상점들이 파괴되고 주택가도 피해를 입었으며 버밍햄의 소방서들은 폭도들의 습격을받아 소개되기도 했다.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영국경찰이 10일 새로이 黑人폭동이 발생한 런던남부 브래스턴시가지를 행진하고있다. 브래스턴에서는이날낮흑인폭도들의 폭동이 발생,경찰차 한대가 전소됐다.【런던10일UPI聯合=特約】

防衛정책 軌道수정

日, 對美軍事협력 최대한強化키로

【東京10日=聯合】일본정부는 10일 각의에서 소련의 군사력증강이 서방세계에 위협을 주고있다는 미국의 정세인식에 동조하면서 美·日간의 군사협력을 최대한 강화해나간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오오무라(大村襄治)방위청장관의 방미후 귀국보고를 듣기위한 이날 각의에서 특히 소노다(園田直)외상은 美·蘇의 군사력 격차가 커지고있는 현단계에서 일본은 美·蘇간의 대화를 권장하기보다 우선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도록 미국에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한 긴장완화를 주장해온 소노다외상이 소련의 군사력 우위를 인정하고 美·日간의 군사협력을 강조한 것은 일본방위정책의 중대한 궤도수정으로 이곳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日防衛費 引上촉구

【東京11日=聯合】미국정부는 일본에대해 내년도방위예산의 금년대비 7.5%증액목표를 반드시 달성할것과 아울러 앞으로 수년간은 계속해서 이같은 수준의 방위예산증액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物價 事後관리期限 단축

97개對象品目도 하반기에 再調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과 물가관리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면 물가사후관리시책의 실시기한을 올하반기중에라도 단축시키고 97개사후관리대상품목도 여건이 개선되는대로 하반기중에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하오 全經聯에서 열린 하반기물가전망과 사후가격관리방안에관한 간담회에서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에 의해 밝혀졌다.

崔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일 취해진 하반기 물가관리대책은 민간자율경제의 촉진및 물가안정 공정거래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말하고 97개 시장지배적 품목에 대한 사후가격관리제도는 물가정책수립에 필요한 가격동향및 가격변동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價格情報制度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인하, 세제등 정책변수의 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차관은 그러나 기업의 지나친 가격인상이 재연될경우 현행 법체제안에서도 정부가 직접 관여할수 있다고 강조, 기업들이 물가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했다.

農水産분야 租稅 免除 5년간延長

民正, 건의키로

民正黨은 10일 하오 농수산분과위 간담회를 열고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農·畜·水協에 대한 법인세등과 沿近海 어선용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및 양축농가의 소득세등 농수산분야의 租稅면제시한을 5년연장토록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수산업의 상대적 落後로인한 離農현상과 농촌인구의 감소, 농어촌소득의 도시근로자 소득미달등으로 보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농수산분야에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농가세의면세점을 도시근로자수준(年1백86만원)으로 인상토록하는 한편 쇠고기값의 현수준유지와 축산기반의 육성강화를 촉구키로 했다.

李文公 어제向美

◇李光杓문공

李光杓문공부장관은 오는 14일부터 워싱턴의 스미소니안박물관에서 열리는 韓國美術5千年展 워싱턴 전시개막식에 참석키위해 11일하오1시30분KAL편으로 출국했다.

「한국미술5천년전」은 79년5월1일 샌프란시스코박물관에서 개막을 본이래 미국의 7개주요도시에서 순회전시를 가져왔는데 이번워싱턴 전시가 마지막으로 미국순회전시가 모두 끝나게된다.

韓日관계 重要性 재인식

日外務省 스노베事務次官 기용의 背景

◇스노베次官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가 스노베·료오조(須之部量三) 前주일대사를외무성 사무차관으로 기용한것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호협력에 전진적자세를 보인것으로 평가된다.

知韓인사인 스노베의 사무차관등용은 金大中사건으로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오는 7월말의 한일외상회담을 실현한데이어 8월의 각료회담, 12월의 한일頂上회담을 뒤따라 실현하여 한일우호관계를 재정립할 태세라는 신호다.

다까시마(高島)사무차관은 美日정상회담에따른 방위증강문제 파문으로 외무성내에 잡음이 일어나자 이토(伊東)외상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으나 스즈끼수상의 유럽방문과 오타와 선진국경제정상회담등 긴박한 외교일정으로 사표가 잠시보류된상태다. 그러나 스즈끼수상의 외교행각이 끝나는 7월28일 다까시마 사무차관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스노베 前주일대사가 그후임으로 앉게된것으로 해석된다.

外相·閣僚·頂上會談 의식한 「逆流人事」

다까시마로부터 스노베로 바톤이 넘어간 외무성사무차관의 자리는 일본외교를 실제로 요리하는 직업외교관의 최고책임자의 자리다. 스노베 前주일대사는 다까시마 사무차관보다 외무성관료로서는 2년선배다. 그때문에 스노베의 사무차관 기용은 일본 외무성인사상 전례없는 逆流인사라는 평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까시마 사무차관 후임으로 가또(康暉)심의관을 기용해줄것을 건의했으나 소노다외상은 이를 기각하고 知韓인사의 기용으로 결말지었다.

지난 5월 이토외상의 뒤를 이어 취임한 소노다외상은 2개월간 갈팡질팡하여 자민당내의 반발을 샀다.

소노다 외상은 美日공동성명을 가리켜 「공동성명은 조약과달리 구속력이 없다」 한다」는 발언을했다. 소노다 외상은 특히 6월에 열릴 예정인 한일외상회담을 연기해놓고 북한의 玄峻極의 입국을 허가하여 그의정치활동을 방임하는 등 한일간 외교에 금이가는 정책도 폈다.

집권 자민당은 소노다의 외교노선에 브레이크를 걸고 對美외교와 對韓외교를 주축으로한 전통적외교자세에로의 회복을 촉구했다.

대내외의 비난에 따라 소노다 외상은 對美, 對韓외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知韓派이며 외교능력이 있는 스노베前대사를 기용, 韓·美·日 삼각우호협력의 계기를 잡았다.

民正 院內대책회의

국회召集 議題없다

民正黨은 11일 李鍾贊총무주재로 院內대책회의를 갖고 임시국회 개회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문제를 총무단에게 일임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사무처 원장들로부터 常委별로 활동상황과 議題의 有無를 보고받은후 현재로선 국회를소집할만한 案件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회의는 또 全斗煥 대통령의 東南亞순방 성과를 수행한 각부처장관들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오는 15일께로 예정된 外務委에서 盧信永장관의 보고를 듣는것이 더효과적이라는 다수의견으로 기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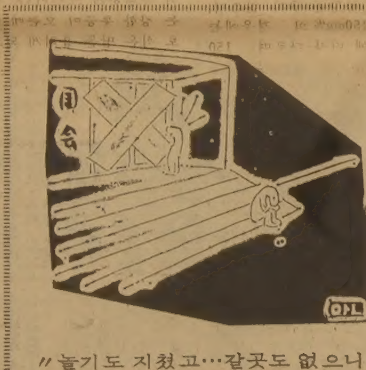
環境汚染 세미나

民韓黨, 오는15일

民韓黨은 오는15일 정책심의회산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金燦于의원) 주최로 汝矣島당사에서 환경오염과 그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이 세미나에는 權肅杓교수(延世大)가 주제발표하고 車喆煥교수(高麗大)등 5명이 토론에 참가한다.

社會漫評



"놀기도 지쳤고…갈곳도 없으니… 좀 엽시다!…"

地平線

허허벌판 넓은땅에 집장만하기 쉽다는 미국의 집값은 얼마나될까? 상무성에 의하면 지난 5월현재 미국전국 평균집값은 8만3천9백 달러(5천8백20만원)다. 최고에서 최하의 중간은 7만2천6백달러(5천38만원)다. 물론 현금을 주고 사는게 아니라 으레 은행돈으로 사는 값이니까 은행이자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오르락 내리락하게 마련이다.

▼세계적인 불황기로 미국에서도 부동산경기가 시원찮다. 노동성에 의하면 84만2천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고, 약50만명이 반실업상태에 있다. 형편은 세계각국 모두 비슷하다. 일본의 건축경기도 작년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2월현재 작년보다 7.3%나 낮아졌다. 건축경기가 바닥권에 왔다는 것이다.

▼세계 복덕방 연합회 미국협회가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복덕방업자 1천1백명에게 앞으로의 전망을 물었다. 그 결과가 신통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에 밝혀진 조사결과는 1년안에 경기가 회복될것으로 보는 사람이 35%, 85년까지 기다려야된다는 사람이 62%다. 1년안에는 집값이 오를것으로 보는 사람은 겨우 18%, 85년까지는 오를것이라는 의견은 25%였다한다.

▼부동산분만 아니라 경기자체에 대한 기대가 지난연말보다 약간 후퇴하고있다. 선진공업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12월말께도 선진국의 경제가 올해엔 1%의 성장을 보일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서독외 5개경제연구소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OECD의 전문가들도 제로성장이나 0.5%성장에 그칠것으로 보고있다.

▼OECD는 또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적어도 6개월 늦어 내년말에 가야 드러날것이라고 경기예측을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도 내년말이면 금년보다 2백만이 늘어난 2천8백만명이나 될것이라고 한다. 유럽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회복의 「연기」가 미국의 높은 이자율, 달러의 强勢때문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선진공업국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게 유명한 「영국병」을 앓고있는 영국이다. 리버풀에서 시작해서 맨체스터로 번진 인종폭동도 말하자면 불경기가 몰고온 폭풍이라고 할수있다. 17%나 되는 실업자, 더구나 도시중심부에서는 40%나 되는 실업자가 우글거리는 리버풀은 전국평균 11%의 실업률과 비교도 안되는 상태다. 배부를 때엔 참을수 있었던 인종차별도 실업자에겐 견딜수 없었던것 같다. 영국 인종폭동은 그러니까 세계경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셈이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6
은 : 온스당 US 8.2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여러분의 삼복식품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REG.	SPECIAL
①경기미 20kg	$ 24.50	$ 22.50
②참기름(일제) 1갈론	11.50	9.50
일제전기밥솥(한사람1개)	159.95	120.00
④일제소면(BOX당)	11.40	9.50
⑤냉면(2인분) 봉지당	1.29	0.99
⑥물미역 파운드당	1.99	1.59
⑦삼치	½	PRICE
⑧이면수	½	PRICE
⑨한국산 미역	½	PRICE

이 외에도 약20여가지의 특별세일 품목이 있음.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行政用語가 바뀐다

日式漢字語·지나친 外來語등1,035개

쉬운 우리말로

命令 준수事項→꼭지켜야할 사항으로
手入→손질, 各位→여러분 深甚→깊은

行政用語중 일본식 漢字語나 어려운 한자어, 정도가지나치는 外來語로된 1천35개

用語가 쉬운말로 바뀐다. 총무처는 11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연초부터 어렵거나 모순이 많은 행정용어 선정작업을 시작, 7천5백40개중 전문적인 용어나 기술적인용어를 제외하고 개선대상용어 1천35개를 선정, 이달 말께 열리는 문교부 국어순화운동협의회에 심의를 의뢰키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총무처관계자는 『문교부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들용어를 행정편람에 수록, 행정기관에 배포, 행정용어로 활용이되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화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행정용어의 예로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용어의경우 「命令事項」은 「꼭 지켜야할 사항」으로, 「承服할것」은 따라주시기바랍니다, 「遵守할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로 각각바꾸고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 「가리방」은 줄판으로, 「手入」은 손질로, 「仕樣」은 규격으로, 남은투의 한자어로 「各位」는 여러분으로, 「今般」은 이번으로 각각 바꾼다는것.

폐지·순화되는 行政用語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용어
▲소환(召喚)하고자, 나오시도록 하고자
▲승복(承服)할것,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는)자(者)는, (하는) 사람은
▲조신(操身)할것,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통고(通告)함, 알려드립니다
▲통보(通報)바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자(下記者), 아래 적은 사람은
▲시달(示達)하다, 알리다
▲하자(何者)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한것, 하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가리방, 줄판
▲견양(見樣), 본보기, 서식
▲마메인(豆印), 잔도장
▲사양(仕樣), 규격
▲서취(書取), 받아쓰기
▲소사(小使), 사환
▲소지(掃除), 청소
▲수입(手入), (병기)손질
▲시로도(素人), 서툰이, 서툰사람, 풋나기
▲시메끼리, 마감
▲신립(申立), 신청, 아룀
▲신입(申込), 신청, 청약
▲별단(別段), 다른, 특별한
▲오시핀(押Pin), 압정
▲와리깡, 나눠내기, 각자부담
▲시아게, 마감, 손질
▲사입선(仕入先), 산곳, 살곳
▲일응(一應), 일단
▲적요란(摘要欄), 참고란
▲탕카(担架), 들것
▲하리핀, 못바늘, 침핀
▲히카에(控), 부본(副本)

◇남은 투의 한자어
▲각위(各位), 여러분
▲거반(去般), 지난번
▲계출(屆出), 신고
▲금반(今般), 이번
▲기지(其旨), 그뜻
▲무루(無漏), 빠짐없이

◇어려운 한자어
▲미구(未久)에, 멀지않아
▲상금(尙今), 아직(까지)
▲소이(所以), 까닭
▲앙고재(仰高裁), 결재바람
▲연(然)이나, 그러나
▲자이(玆以), 이에
▲차시(此時), 이때
▲각인(刻印), 도장을 새김
▲각필(擱筆), 붓을 놓음
▲강잉(強仍), 부득이, 그대로
▲난삽(難澁)하다, 어렵다
▲누습(陋習), 잘못된 풍습, 그릇된 버릇
▲배면(背面), 뒷면
▲심심(深甚)한, 깊은
▲실기(失機)하여, 기회를 놓쳐
▲위요(圍繞)하다, 둘러싸다
▲삼제(芟除), 베어버림, 제거
▲압날(押捺)하여, 찍어서
▲위구(危懼), 두려움, 무서움
▲인방(隣邦), 이웃나라
▲지실(知悉)한, 안

◇필요이상의 외래어
▲아국(我國), 우리나라
▲넘버링, 번호기
▲다이어(열차), 시간표
▲디스카운트, 깎다
▲라이선스, 면허, 허가(장)
▲리스트, 목록, 명단
▲링크, 연결
▲마스터, 숙달, 통달
▲매너, 태도, 버릇, 몸가짐
▲메시지, 성명(서), 교서
▲메이커, 제작자, 제조업체
▲샘플, 견본, 본(보기)
▲센서스(통계), 전수(국세)조사
▲스텐실페이퍼, (타자)등사원지
▲아프터서비스, 사후봉사, 사후관리
▲알리바이, 현장부재증명
▲언더라인, 밑줄
▲에스오피, 운영예규
▲오리엔테이션, 예비교육, 입문교육
▲오일쇼크, 석유파동
▲인덱스, 찾아보기
▲체크리스트, 대조표, 점검표
▲핸드북, 편람, 소책자

法令, 6백여개廢止 總理令·部令도檢討

정부는 成長발전沮害要因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현행法令 3천여개중 효력이 상실된것과같은法令 6백여개를 1차로 폐지할 방침이다.

『法制處』고위관계자는 11일 『法制處에서 그간 7백여개의 현행 법률과, 1천2백여개의 大統領令의 효력有無를 검토한 결과 법률1백여개, 대통령령5백여개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말했다.

"앉아있는 오리" 방패뒤서 떨기만

프랑스式 특수경찰 없어

화이트로 내상은 이미 마스크달린 헬밋을 경찰에지급했으며 방화복도 지급해줄것을 약속했다.

경찰연맹의 의회고문인 엘던·그리피스씨는 『오늘의 영국사태는 술판일』이라면서 『경찰은 방패뒤에 숨어서 떨고있지만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수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경찰에는 특수훈련을받은 폭동진압반이 없래스티제 방패만세운채 스 [illegible]

[illegible] 내리치려고했다. 내였에있 는 아직도 평화로운 비무장경찰상을 포기하긴 원치 않는사람이 있다.

1977년 런던인종소요 때 영국경찰은 던 경찰한명이 넘어지는것을 보았다. 다음순간 그 자루 사나이는 내게로 돌진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모른다』고말했다.

의회의 경찰업무에 대한 통념을 바꾸지않는한 경찰은 자구책을 취할수밖에 없는 직업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짐·프라이어 英國노동상은 이날 한회합에서 이번 인종폭동의 근원이실업때문이며 정부는 젊은이들을 수용할수있는 새로운 [illegible]

산된 폭동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처수상은 또 『시민정신을 감싸는 보호막은 베니아板처럼 얇다. 만약 폭동이 계속된다면 경찰력은 더욱 강화되어야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더이상 폭력사태를 용인하지 않을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번지는 暴動 英경찰 손들어

새裝備못갖추고 진압技術 모자라

【런던11日聯合】 [illegible] 외국인들은 감탄해왔다. 하지만 [illegible] 리버풀·맨체스터·런던등지에서 [illegible] 윌리엄·화이트로 내상은 [illegible] 약속했다.

[illegible] 다고 리버풀경찰국장 케네스·옥스퍼드는 말한다.

[illegible] 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illegible] 재의 경찰이 바꾸고되지 않다. 그러나 경찰이 앞으로 강경책을쓰지않으면 사태는 재발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연맹회장 짐·자다인도 폭동진압방법의 변화를 주장한다. 그는 『지금의 영국경찰은 앉아있는오리』라고 기자들에게 불평했다.

많은 영국사람들은 프랑스의 유명한 공화보안부대(CRS)처럼 일반경찰과 분리된 폭동진압경찰을 갖기를 바라고있다. 프랑스의 공화보안부대는 1968년 파리에서 일어난 학생폭동을 잘 막아냈다.

데일리·메일紙도 『폭동진압 경찰은 푸른제복의일반경찰과는 달라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우선 새장비의 구입과 폭동진압 기술의 습득이 더 바람직하다.

정부가 런던에서 1개월간의 시위금지령을 발표한 지 몇시간뒤 폭동은 전영국으로 확산했다. 이 시위금지령은 오는 29일 거행될 찰즈황태자와 스펜서양의 결혼식과 그결혼행진의 행사에는적용되지않는다.

지난10일밤 만찬연설에서 대회 양국수상은 『양국의 민주주의가 전국으로 확

◇화염에 휩싸인 英맨체스터市街 1천여 젊은폭도들이 맨체스터市 모스지구의 경찰서를 습격, 방화하여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맨체스터=UPI】

뉴스 초점

칸國際會議 개막

新舊지도층 招請여부注目

【유엔본부10日AP=聯合】 오는 13일 유엔에서 개막되는 캄보디아문제에 관한 유엔주최 회의는 개막첫날 캄보디아 新舊지도자들이 회의에 초청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유엔관리들이 밝혔다.

[illegible]

이번 회의에는 미국등 약 70개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소련과 베트남은 참가를 거부했으며 중공은 캄보디아 新舊지도자들의 회의참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외교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개막첫날인 13일 헹·삼린의 물론 前캄보디아 국가주석 노로돔·시아누크公, 前수상 손·산(現크메르인민민족해방전선지도자)등 新·舊 캄보디아지도층의 초청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히면서 만일 헹·삼린이 초청을 받을경우 이를 수락할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越, 蘇원조依存키로 새經濟 5개년계획

【방콕10日UPI=聯合】 베트남은 이미 對蘇부채가 상환능력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음에도불구하고 8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소련의 원조에 의존키로 한것으로 방콕에서 청취된 관영 VNA통신이 10일 시사했다.

佛, 國防정책 獨自추진

에르뉘國防相 "核개발·武器수출 계속"

【파리10日AP=聯合】 프랑스사회당정부는 스스로 원하지않는 국제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核억지력의 ▲중성자탄을 포함한 핵억지력의 개발 ▲對外개입군유지 ▲무기수출 ▲초강대국의 군축을 골자로하는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나갈것이라고 샤를·에르뉘국방상이 10일 밝혔다.

에르뉘국방상은 이날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에 게재된 회견에서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기반으로하고있는 사회당정권의 국방정책은 핵억지력의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개발에 있다고 전제하고 前대통령이 추진해온 중성자탄의 개발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세부적으로 밝힌 에르뉘국방상은 또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위해 긴급개입군의 유지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제3국지도자들의 명백한 요청이없는 한 그러한 간섭정책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의 독자적인군비증강위해 무기판매를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美·加頂上회담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訪美중인 트뤼도 캐나다 수상과 회담하고있다. 【워싱턴10日UPI=聯合】

폴란드共黨 親기에레크派 축출 본격화

주요人士들 再審査

【바르샤바10日AP=聯合】 폴란드공산당중앙위 전체회의는 10일 前黨제1서기 에드바르트·기에레크의 사저를 몰수하는 한편 前수상 에드바르트·바비우치등 기에레크측근 주요인사들에대한 심사를 黨통제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근의 국내정치 및 경제위기와 관련, 黨내親기에레크세력을 축출하기위한 1단계조처를 취했다.

전체회의는 또한 黨정치국과 서기국이 이들의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對정부신임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초 우려했던 강경파 회개혁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결은 발생하지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美 核雨傘 없었다면 日, 수년전에 再武裝"

라이샤워敎授주장

【東京10日AP=聯合】 美核무기의 日本반입에 관한 발언으로 최근 정치적 물의를 일으켰던 에드윈·라이샤워 前주일미대사는 미국의 核우산이 없었다면 일본은 수년전에 재무장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인용보도되었다.

라이샤워교수는 도오꾜오의 학생들이 그의 미핵적재함의 일본기항발언과 관련하여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오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美하버드대학교수로 재직중인 라이샤워 前대사는 일본이 美日안보조약에 의해 외부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기때문에 전후평화헌법을 유지할수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조약과 美核우산이 없었더라면 수년전에 재군사화를 시작했을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고지적, 무기수출을계속한다는방침을천명하고지스카르前정부하에서행해진무기판매계약중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메아리

「서울 禮讚」

[illegible] 아름다움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인의 美人觀은 서양인이지만 발끈머리가 비치나 서양은 [illegible]

[illegible] 서울에와서 입을 보고 나면 「서울에선 살고 싶지 않다」며 돌아간다. [illegible]

[illegible] 우리 눈이 그 아름다운 면을 못보고 있을뿐이다. [illegible] 서울의 안보. 옛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서울의 山川은 예 그대로다. [illegible]

[illegible] 도시생활의 긴장이 이를 관상할 마음의 여유를 풀어주지 않겠지만 「동천당의 아름다움」을 서울시민은 잊지 말고 아끼며 살아야 하겠다.

政局往來

◆알맹이없는 회의로 끝난 공화당사에서 11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열린 民正黨의 院內대책회의는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illegible] 27명 전원이 [illegible]

[illegible] 임시국회소집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illegible]

◆『政策자료』好反應에 실무밝힌 [illegible]

한편 沈明輔의원은 『긴급한 議題가 있을경우 이외는 [illegible]』 이라고 말하기도.

[illegible] 韓英洙정책위의장은 [illegible] 黨婦女局은 11일 [illegible]

主敎와 同席못해

★牧師, 찰즈招請狀받고

북아일랜드의 신교지도자 이언·페이슬리목사는 최근 가톨릭주교와는 동석할수 없다면서 오는29일 거행되는 찰즈영국황태자의 결혼식 참석초청장을 영국왕실에 반송했다. 영국국회의원이기도한 페이슬리목사는 가톨릭교가 영국왕실을 붕괴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황태자결혼식에 가톨릭주교가 참석하는 것은 3백여년전에 결친 영국의 청교도혁명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越난민이 美陸士에

★7對1경쟁 男女1人씩

금년도 웨스트포인트 美陸軍사관학교 신입생 1천5백40명중에 베트남난민 2명이 끼어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주인공은 뉴저지州 린즈출신의 홍부군(17)과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출신의 진·구엔양(17). 이들 두사람은 지원자 1만1천명이 몰려들어 평균 7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암내利用 바퀴退治

★풍뎅이·포개의 가루를 발상

【뉴욕=AP】 미국의 한과학자는 최근 암놈의 바퀴벌레가 발산하는 암내와 유사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을 합성, 암내를 이용하여 수놈의 바퀴벌레를 유인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캘리포니아대학 곤충학교수 리엄·벨바사가 개발한 이방법은 바퀴벌레 암놈의 배설물과 유사한 냄새를 풍기는 이 물질을 곤끈적한 종이에 섞어 바르고 이 종이를 방바닥에 두면 약 8m의 높이에 있는 수놈의 바퀴벌레라도 단 5초내에 이 종이위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만다는것. 【워싱턴=聯】

◇뉴욕에 모인 美女들 오는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하는 세계각국의 미녀들이 10일 자유의 여신상 근처에서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고있다. 【뉴욕10日AP=聯合】

海外토픽

이, 레바논爆擊재개

【텔아비브·베이루트10日UPI=聯合】 이스라엘군 제트기들은 10일 하비브 미중동특사가 이스라엘·시리아 미사일위기를 수습하기위한 제3차 중동왕복외교에 착수한 10일 5주간의 소강상태를 깨고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게릴라거점들에 대한 폭격을 재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팔레스타인 게릴라들도 이날밤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대해 로켓포 공격을 감행, 이스라엘 민간인 및 군인이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확한 포격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늘의 歷史 <12일>

▲伊 마르코니 대서양횡단 무선전신 성공 (1902)
▲대통령중심제헌법안 국회 통과 (1948)
▲한국군통수권의 美軍이양에 관한 협정체결 (1950)
▲南原·榮州地方에 큰 水害 (1961)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 공포 (1961)
▲英領 길버트諸島, 키리바스공화국으로독립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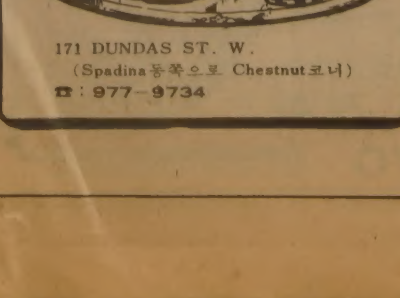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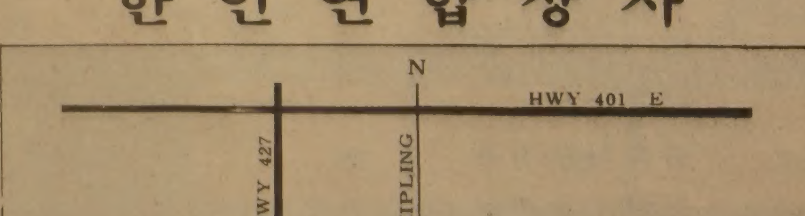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 인 연 합 상 사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韓国庶民列伝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끝내 못이룬 祖國하늘 飛翔의 꿈

첫 女性鳥人 朴敬元

不遇한 환경…苦學으로 日飛行校졸업
28년 2등資格따 愛機몰고 歸國길에
箱根上空서 추락…40년만에 幽宅찾아

1933년8월7일 상오 10시35분 초라한 단발프로펠러비행기가 일본 하네다공항을 떠났다. 멋진 이륙에 비행장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환호성을 올렸다. 비행기는 현해탄쪽으로 기수를 돌리며 관광지인 하꼬네(箱根)상공을 지나 구름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다.

그후 비행기는 하꼬네산기슭에 추락했고, 미모의여조종사는 잠자는듯 숨진채 발견됐다. 이 미모의 여조종사가 바로 종의 딸로 태어나 하늘에 웅지를 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 朴敬元이다. 조국비행의 오랜 꿈을실현하려다 창공에서 나래를접은것이다.

朴敬元은 일본 항공史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로 올려져있고 일본사람들로부터는 「鳥人」이라 흠모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이야기가 소상하게 국내에 알려지기시작한 것은 73년. 여류비행사 金環梧씨가 日本부인항공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부터였다. 金씨는 부인협회회원 이또오(伊藤静代) 여사로부터 다찌가와(立川)비행학교동창생인 朴敬元에관한 색다른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한日本人 남자비행사가 그의 죽은모습이 너무아름다와 시신앞에서 프러포즈를했단」 「그여자는 뛰어난 詩人이어서 시집을 낸적도 있단」 소문. 그리하여 朴敬元의 잊혀졌던 무덤을 찾는 일은 韓·日 여류비행사들의공동노력으로 이루어 지게되었다.

『日本항공부인협회는 1년동안 日本매스컴을 통해 朴敬元의 묘소를 알고 있는 동창과 친지를 찾았고 저는 大邱에 가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유족들을 찾았어요』

일본에서는 朴敬元의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 하꼬네 산중에 40년동안 파묻혀지낸 그의 무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그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있다.

그는 1901년 6월24일 大邱 덕산정(德山町)에서 위로 오빠 朴尙龍 朴尙勳 등 생 朴尙文등 4남매의 세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朴씨는 18세에 여의었다고하며 종살이를 했다는 말이 있을뿐 확인할 길이 없으며 어머니의 姓은 張씨였다.

집안 환경때문에 이들 남매는 일지전쟁으로 자기 삶을 개척했다. 오빠 尙勳은대구 慈惠醫院의 의사로 근무하였고 동생 尙文도 滿北間原에서 소醫로 의학계에서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敬元은 17세때 대구 복명학교(復明學校) 전신인 明新여학교를 마치고 그해 日本으로 건너가 橫濱技藝여학교에 입학, 1920년까지 다녔다. 그후 敬元은 귀국하여 자혜병원간호부양성소에 들어갔고 24년 5월까지 약 2년간 자혜병원에서근무했다. 그가 간호복을입은것은 여류비행사가 되기위한 준비단계가 아니었던가추측이된다.

훗날 그는 한 일본인 친구에게 『17세때 처음 日本에유학와서 비행기가 하늘에나는걸보고 놀랐고 신기하기도해서 며칠잠을못잤다. 비행기를 타면 日本사람 눈치안보고고국 하늘을 마음대로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국에서 간호원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이말대로 그는 1924년 9월 다찌가와(立川) 비행학교에 입학한다. 그당시 항공계는 많이 항공계입문 할 로조차 원시적이어서 徐曰甫 李基演같은 초기 남자비행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비명에 가던때였다.

『남자들도 비행기타는 것은 목숨내놓는 일이라고 했을때 그분이 감연히 조국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을 갖고 조종사를 희망했다는 것은 그 용기만이라도 높이 평가 해야 한다』는 金環梧씨(49·대한항공협회 부회장)의 말이다.

비행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심한 육체훈련을 견뎌야 한다.

『키는 1m68㎝정도로 큰 키 였으나 몸은 건장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오뉴월 뙤약볕속에서 기계분해를 배우고 수리정비하고, 한겨울에도 고된 훈련을 잘 참아내더군요. 성격이 활달해서 훈련도중에는 씨름도 곧잘했어요』

다찌가와비행학교 동창으로 우리나라 초기 항공인의 한 사람인 徐雄成옹(76)의 회고이다.

맨주먹으로 비행학교에 들어온 敬元은 학비가 쪼들렸다. 동료들의 비행복을 빨아주는 아르바이트를하면서 학교생활을 어렵게 계속해야했다. 비행학교는 수업료나 책값만으로 마칠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비행기를 1시간 타면서 비행술을익히는데 1백20원(쌀 24가마값)이 들었다. 그가 고학으로 실습비를 충당한다는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때문에 한말 학부대신을지낸 李容植이 朴敬元의 비행학교 학자금을 대 준 후견인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진실일것이다.

徐雄成씨는 『학자금에 쪼들리던 朴敬元이 「어느 존귀하신 어른이 사람을 보내어 학자금을 대주마 했다. 그어른 이름은 절대 세상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고 하며 몹시 기뻐 하던 생각이 난다』고 회상한다. 徐옹은 그뒤 「존귀하신 어른」이 李容植임을 李容植의 비서 鄭모라는 사람한테 들었다고 한다.

한국의 여류비행사 朴敬元이 日本人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1927년 1월15일 그가 3등조종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시험은 기술시험을본후 다시 비행장에서 아폴로 2백마력機를 조종하는 것이었다. 그의 살짝 뒤꿈치를 들고 날아가는듯한 이륙, 나비가 날아앉듯 살포시 쭈그리고앉는착륙(着陸)은절묘해시험관들도 넋을 잃었다고 한다.

이 비행솜씨는 곧 「朝鮮출신 여류 鳥人의 첫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日本 신문, 잡지를 장식했다. 이소식은 곧 조국으로 전해졌고 소녀들은 제2의 朴敬元을 꿈꾸고 흠모했다. 東京까지 그를 찾아가 장래의 지도를 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1928년7월 東京 요요기(代代木)연병장에서 거행된 비행기조종사 경기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 日本人들을 다시한번 놀라게 한 뒤 숙원이던 2등비행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당시 항공법에의하면 2등비행사가 되어야만 장거리 해외비행에 나설수 있었다. 朴敬元의 큰 소망인 고국방문비행이 이루어 지게 된것이다.

그는 돈도 없는 한 친구에게 『고국방문 비행을 마치는 날에는 더 바랄것 없는 몸이니 생명과 육체를 공중에 분해시키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조국방문비행에 강렬한의욕을 보였다.

그러던 그에게 32년가을나고야(名古屋)신문사주최로일만연락(日滿連絡)비행경기가 베풀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야말로 하늘이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그는 기뻐했으나 1등비행면허가 없다고 거절당했다. 그당시는 여자에게 2등비행사이상의 면허를주지 않던때였다.

그의 낙심은 대단해서 옆에서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으며 며칠을 눈이 퉁퉁부어 다녔다고 한다.

이런 그를 위해서 日本항공학교 동창들은 육군성으로 찾아가 비행기 불하를 교섭한끝에 살무손2A2機를 입수, 敬元의 고국방문비행을 돕기로 한것이다.

그는청연호(靑燕號)라 명명된 이비행기를타고 東京—大阪—蔚山—서울—平壤—新義州—奉天—新京, 2천㎞에 달하는 여류항공사상 초유의 향토방문겸 日滿비행을 계획했다. 일시는33년8월7일로 결정했다.

『朴敬元이 출발일을 7일로 결정하자 그날이 불길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떠돌았다. 공교롭게도 8월6일은 무또오(武藤)원수의 장례날이고 이튿날은 영구가 떠나게 되니 7일은 저승가는 날이다. 더구나 7일은 가장불운의날인 불멸일(佛滅日)이며, 태풍때라고 그를 만류하기도 했다』고 徐옹은 말한다.

그러나 朴敬元은 이번 비행을 연기하기엔 너무나 오랜세월을 두고 눈물과 한으로 별러 왔기때문에 양보할수가 없었다.

1933년 8월7일 10시35분 그는 愛機 청연호를 타고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다. 하네다에는 모든 조건이 양호하다는 제1신이 입수되었다. 또 10분이 지났다. 하꼬네(箱根)가 멀지 않았다는 제2신이 접수 되었다.

일기의 변화가 심했으나 비행사들에게 가장 난코스로알려진 하꼬네산을 무사히통과했다는 3신까지 들어왔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길게 쉬었다. 항로 제일의 난코스를 돌파한 이상 청연호는 예정대로 현해탄을넘어서 예정대로 비행할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된일인지 그로부터 청연호의 통신은 두절됐다.

떠난지 6시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날상오11시 좀지나 西脇厚라는 소년(당시17세)은 이상스런 물체가 송곳을비비듯 팽그르 돌며 곤두박질하는 것을 목격했다.

신고를받은 경찰과 동료들이 달려갔을때 청연호는 25도의 급한 사면에 거꾸로 처박혀있었다. 프로펠러가 박살이난 엔진사이로 朴敬元의 얼굴이 비스듬히 보였고 날개는 한가운데가 부러져서너덜거렸다. 이는 곧 신문들이 호외로 찍어 알렸고 韓·日국민이 모두 애도했다한다.

그후 朴敬元의 유해는 화장되어 大邱로 옮겨졌고 八公山桐華寺에 안치되었다고 하나 확인 할수가 없다. 다만 그의 죽음은 金環梧씨와 日本항공인들이 日本静岡縣田方郡多賀村근처 玄岳山기슭에서찾아낸돌비석속에만남아있을 뿐이다. 【崔成子기자】

◇1933년8월7일 고국방문비행의 장도에 오르기직전 愛機「청연호」앞에선 朴敬元. 그는 이사진을 찍은지 50분만에 세상을떠났다.

◇朴敬元추락당시의 목격자 日本人이 지난 75년 한국항공협회에 기증한 사고機 청연호의 속도계.

山林廳 내무부 이관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⑧⓪

山林保護 의식 높이는데 큰 도움

73년은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변혁기였다. 당시 朴正熙 대통령은 경기도청 초도순시자리에 崔定錫임목육종연구소장을 특별히 불러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보호시책이 철저히 실시돼야 하겠는데 산림청이 농림부산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니 당분간 내무부산하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은적이 있다. 산림청의 행방에대한 예각이짚이는데가 있었다 했더니 얼마후인 3월3일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무렵의 내무부장관은 金玄玉씨였고 산림청장은 孫守益씨였다.

산림보호를 강조한 대통령의 뜻은 곧 전국 경찰력의 동원으로 나타났다. 金장관은 경찰간부를 모아놓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중요한 임무가 없도록 지시하고 소홀히 했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호통을 쳤다. 그 호통이 하도 강렬해서 옆에 앉아있던 내가 오히려 섬뜩할정도였다. 그로부터 入山금지는 물론 낙엽채취가 일체 불허되었고 보호의미를 강조하는 뜻으로 조림도 植樹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조림후의 檢木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참으로 엄청난 실천력이었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이 비록 「힘」에 의한 결과였다 하더라도 단시일안에 낙엽채취가 근절되는 동시에 산림보호에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산림을 소중히하는 기풍이 일었다. 金장관에겐 산림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로부터 햇수가 더해질수록 산의 푸르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산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로 들려왔다.

강력한 행정력의 덕이었다. 그러나 흠도 있었다.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된후 치산녹화10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아직 기술도 뒷받침되지 않은채 양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10년간 1백만정보를 조림키로하고 전국에 5천7백개 새마을 양묘장을 만들어 속성수 묘목을 양묘토록 한다는것이었다. 그같은 계획이란 도무지 성급했고 不實이 빤히 내다보였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는 하지않는다.

그런점들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그해 이른봄 토요일하오 내연구실로 청와대 金正濂비서실장이 예고없이 찾아왔다. 그분은 인사치레를 생략하고 무슨 애로나 건의할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우선 양에 치우친 조림은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육종품종을 비교 실험할 토지가 평지가 아니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金실장이 돌아간후 곧 시험지 매수비조로 5천만원이 내려왔다. 그며칠후쯤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던 洪性澈씨가 다시 내려와서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했다. 이자리에서 나는 두가지를 건의했다. 첫째는 평소에도 걱정해오던 터이지만 정부의 조림정책이 양에 치우친 나머지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 기술을 익히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수들로 하여금 과거의 성과를 조사평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것이다.

◇74년 來韓, 임목육종연구소를독려하고자극을준 南宮珍박사㊧. 南宮박사는 노드 캐롤라이나 대학교수로 임목육종의 새분야인 量的유전의 권위자이다.

強力한行政力 뒷받침…불안한量위주 綠化계획

둘째는 육종연구소의 자질향상을 위해 미국 노드캐롤라이나대학교수인 南宮珍박사를 석달동안초청, 훈련을 받도록하고 인력부족도 해소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내 건의는 모두 특별배려되었던듯 즉각 고위층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를 건의한 책임으로 내가 단장이되고 교수21명과독림가 3명등 24명이 4개반으로 나눠 여름방학을 이용, 산림사업의 실상을 조사, 종합평가하여 그해 12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그 내용을 관계장관과 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보고회를 갖기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새마을양묘와 새마을조림을 억제하고 우선 시범지부터 만들어 점차 확대해 나가야하며 양보다 질을 위주로한 조림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의 건의가 참착되어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으나 큰 정책변경은 없었다. 「치산녹화10개년계획」은 결국 4년이 앞당겨 6년만에끝났고 2차10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차가 속성수중심이었는데 비해 2차는 경제림중심인 것이 특징이라할것이다. 경험도 쌓았고 기술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양을 중시하여 조급하게 서두는 풍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南宮珍박사가 정부의 특별보조로 6주동안 연구소에 머물러 독려와 자극이 되었고 30명의 인원이 보강되어 有實樹科가 증설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慢性萎縮性胃炎치료

효소제등 투여…苦味劑론 식욕돋궈

위축성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액에 부족한 염산이나 소화산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희염산, 펩신 및 각종소화효소제가 투여된다. 회석된 염산의 투여는 위산에 산을 보충할뿐만아니라, 오래 복용하면 자연 위점막하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능력도회복된다고한다. 소화효소제는 그종류가 무척 많다. 시판되고 있는 주요소화효소제를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단백질의 소화에 좋은것으로 펩신과 리파제등이 있고 당질의 소화에는 디아스타제, 그리고 이들 모두의 소화에 작용하는 것으로는 판크레아민등이 있다.

식욕부진에는 자고로 통상사용해왔던 苦味劑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 위축성위염에서 흔히 만성적인 胃性설사를 보게 되는데 약10%에서 나타난다. 이는 위내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완전한상태의 위내용물이 장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럴때는 식이요법에 한층 신경을 써야한다.

위축성위염이있을때 나타나는 증세는 다양한데다 모호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의 실정은 전문의를 찾기보다는 약국으로 달려가 증세에따라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그후 병의진단은물론 치료에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특히 약국에서 팔고있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는약이 주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성만성위축성 위염에서 위장증세를 한층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것이다. 따라서 위장증세가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정밀검사후 처방을 받도록 해야할것이다.

식사는 위의 부담을 가볍게해주면서 위의 활동을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물론 음식물은 소화가 잘되도록 조리해야한다. 이와함께 과식에 조심하도록 한다. 증세가 가벼우면 다음과같은일반섭생법을 통해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①과식을 하지않는 범위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②가능한한 식품은 소화가 잘되고 영양가가 높은것을선택한다. ③식욕을돋구기위한 적당량의 향신료는 무관하다. ④냉주스, 빙수, 엿과 꿀물등은 피하는것이 좋다. ⑤무산성인 환자는 날것을 피한다. ⑥향신료나 알콜, 담배도 줄이거나 끊지않으면 안된다. ⑦식후 곧 일을 착수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⑧식사는 즐거운 기분으로하되 음식을 잘 씹어 삼킨다.

소화가 잘되는 음식은 기능이 저하된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같은 섭생을 하다보면 위의 증상도 점차 호전되게 된다.

朴灵南 【醫博·漢陽大醫大내과교수】

文化短信

南邨書道院개원

서예가 南邨 姜熙天씨가 주재하는 書道연구원이 개원됐다. 연구원의 위치는 서울鍾路區鍾路1가45 서울빌딩201호. ☎722-8934.

女人劇場 정기公演

극단 여인극장은 제63회공연으로 테네시·윌리엄즈作 金貞洙譯 姜田稹연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16일~22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白星姬 崔鍾元 李文珠 崔榮 姜聲鎬등 출연.

하우프트만作 엘가

극단 가교는 제104회정기공연으로 하우프트만作 「엘가」를 15일~17일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엘가는 한 백작이 창녀아내를 얻음으로써 생겨나는 가정파탄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애정을 미스터리수법으로 파헤친 납량물. 金貞 李吉宰 崔連植 金南哲 崔漢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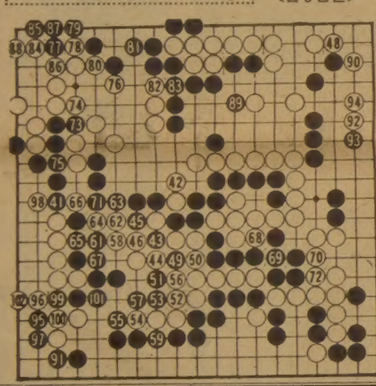
桑港에서 다시한번

극단 뿌리는 제24회 공연으로 버나드·슬레이드作 具熙書역 朴贊應연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번」을 18일~8월17일 明洞 엘칸토 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하오4시, 7시30분.

「샌프란시스코…」는 교외어느 스페인식 호텔침실에서 일어난 25년간의 기이하고 로맨틱한 사건을 코믹터치로그려간 우화적 드라머. 權成德 金星女 출연.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11譜 141~202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曺薰鉉〈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

아래쪽 중앙黑일단이 무참하게 떨어지자 도전자는 승부를 크게흔들며 마지막 고통을 참았다. 이같은 이변은 수없이 겪었을터인데도 불의의 습격을 당한만큼 타격이 컸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던지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아직 싸움의장도 찾으면 있을것같다. 이래서 5분간의 심사묵고에 黑41쪽을 막았다. 우선이곳을 연해두고 서서히 반격의기회를 보려는것이다.

名人은 애써잡은 勝機를 놓치지 않으려고 白42이하46으로 굳인후 서두른다. 그런뒤 잠깐망설인다. 좌하귀를 91자리에 오려 하다가(?) 우상귀에 白48. 최대의 곳이다.

黑49에 7분. 여기서부터 도전자의최후반항은 처절하게 계속된다. 下中央수상은 어차피 黑이진다. 그렇더라도

白、통쾌한 不計勝

49, 51로 예리하게 급소를 찔러가며 이하 71까지 빈틈없이 조여댄솜씨는 가위일품. 만약 생사관계가없을때 이런식을 당한다면 白은 첫째 기본부터 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저그쯤. 白72로서 이곳은 예정대로 끝이나버렸다.

도전자는 다시 6분동안 생각하고 黑73에서 75. 최대한으로 버티어 보았다. 그렇지만 白이우상귀를 90으로 젖힐때 黑은 도저히 덤을낼수 없게되었다.

黑의나머지길은 던지기위한 옥쇄뿐이다. 黑91이 그런뜻의승부수. 하나 白92, 94로 우변이 엉망이되었다. 黑95가 최후의 기습이긴 하나 白은 102까지의완생을 준비하고있었다.

여기서 도전자는 돌을 놓았지만 실상 따지면 본보의 장면은 黑이그저두어본데에 지나지않는다. 47…△이음. 60…49이음. 【一九】

모든 좋이 위의 生 <146>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 ⑤⑤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얼핏놀라는 음성으로 노영지가 물었고, 나는 끄덕인다음 말했다.

『어떤 여관에서. 그가 투숙한 여관인데, 뒤따라 나도 방을 하나 얻고 그의 방으로 간 거야』

영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가 날 좀 싸이코한 여자라고 말한 거, 전혀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지?』

『설마?』

영지는 좀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나를 보았고, 그녀의 그런 표정 위에 나는 얼른 덧붙여 말했다.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그의 옆에 나란히 누울 생각으로. 깨어나서 뜻밖의 여자가 옆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놀래겠어? 어때? 싸이코한 말 맞지?』

노영지는 차마 입을 열지도 못했다. 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들끓는 혼란과 두려움을 또렷이 응시하며 다시 말했다.

『혹시 은애한테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칠년전 그사람과 난 결혼했었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민일씨였었어요?』

영지는 눈이 의혹으로부터 아슴프레하게 밝아졌다. 세호의 입을 통해서였는지, 어머니의입을 통해서였는지 은애는 육칠년 전의 내 결혼식장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은애가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좀 허덕이면서노영지가 다시 말했다.

『어쩌면 그럴수가? 그게 그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경솔했던 건 나였어』

『언니가 무슨?』

『사파하려 그가 며칠동안 우리집에 찾아왔거든. 밤에. 그런데 난 만나주지도 않은 거야』

『당연하죠. 내연의 여자 따위나 숨기고 있는 비열한 사람 아녜요?』

나는 가만히 머리부터 저었다.

『반드시 그럴까? 난 그와 겨우 일년동안 사귀었거든. 그리고 결혼을 서두른 거야. 난 그가 여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고있었고, 또 나마저도 제삼의 다른 여자로 교체될는지 모른다는위협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말야. 이상이야 물론 결벽쪽이겠지만실제는 끊임없이교체되는것. 실제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결벽스런것만 추구하는 것은 도리어 장애가되고. 그때난 지나치게 결벽한것만 주장한셈이야. 따지고보면불결한 어떤 구석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데말야. 영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 은애하고라도 이런 의논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여러번 느꼈는데, 개하고는 시뉘 올케 사이잖아? 영지하고라면 자연스럽게 의견교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애』

『전 잘 모르겠어요. 언니 말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금 내가 그런 교체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 언니는 지난 몇 해동안 한번도 그런 교체 과정을 겪지 않았단 말인가요?』

『기회가 없었달까? 한번의 실패로 그만 주눅이 들어 버렸달까?』

『이해할수 없어요. 몇달 편이에요. 옛날에 좀 알던 여자가 나타나서 학질을떼고 오는 길이라며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그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게 언니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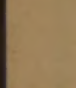
블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 가정용, 실림도구(부엌)
-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 유리 (가구, 상점용)
- 각종 철물및 PAINT
- PLUMBING 제품
- 기 타

변 의 섭
☎ : 531-6183 608 Bloor St.W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 우황청심환 ● 우황 ● 사향 ● 용담
● 녹용 ● 정주사 ●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 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宗敎

뜨거운關心 부른 KNCC 심포지엄

"기독교는 容共的일수 없다"

本質, 영원히 일치할수 없어

싸우기 위한 內的充實 시급

「기독교는 과연 容共的일 수도 있는가」를 놓고 따지는 진지한 모임이 9일 하오6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려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와 질문·응답으로 2시간반 동안 진행된 이날 모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야심적으로 기획하고있는 에큐메니컬 심포지엄의 첫번째행사로 마련된 것으로, 중심테마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로 되어있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념적인 갈등이 극심하다는것이 통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계일각에서는 기독교의 일부선교활동을 「容共的」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않았기때문에 이날의 토론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張日祚(韓神大)孫鳳浩교수(外國語大)의 주제발표와 朴容萬(아시아연합신학원) 姜汶奎씨(YMCA연맹총무)의 질의·응답要旨를 중계한다.

張日祚교수는 세계사에 있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 관계를 해명하거나 일반론을 펴기로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오늘의 화제를 70년대 한국에 있었던 기독교의 용공시비로 문제를 국한하자고 전제한 뒤『공산당이 아닌데도 그 언어와 운동방식에 비슷한점이 발견된다고해서 용공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결론부터 말했다.

70년대에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지적한 그는, 기독교가 독점자본주의나 소수권력 엘리트와 결탁한 그 시대의 사회경제체제를 비판했다고 해서 용공일수 없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6·25때 金日成의 북한 공산주의를 체험한것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없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張교수는 한국기독교 일부의 사회비판및 참여운동에대해 공공연히 「용공적」이라고 규정하거나 모략중상하는 측이 기독교밖에서 보다 같은 크리스천내부에서 더많다고 지적,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대해 응답토의에 나선 朴容萬교수는 우리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착취하는 위치에 서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으며, 그같은 정신으로 어떻게 공산주의와 싸울것인가고 통박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에큐메니컬심포지엄은 최근교계일각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기독교의용공시비에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社會비판·참여로 일부誤解 불러

이데올로기 批判교육 더욱 切實

敎會內部의 非理에 거센自省論도

朴교수는 해방후 공산주의와 대결할수있는 이념이 기독교 아니고는 따로 없었고 그러다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행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끄집어내기도했다. 결국 해방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개인의 윤리, 민족의 양심에 구애됨이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실력」만 길러두면 된다는 병든 의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히게된 현실은 일부 기독교정치인과 기독교재벌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朴교수는 단정했다.

그는 기독교의 자체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우리교회는 호된 박해속에서도 순교로써 신앙을 지켰고 일제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굿굿한면모를 보였다고 환기시킨 朴교수는 기독교가 외부압력에는 강하지만 내부에서 썩을경우 허망하게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우리의 관심을 안으로 돌려서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수있는 內的充實이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이 연간 7백여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거론됐는데 이막대한 돈이 사회에 환원되지않고 교회건물 짓는데만 투입되고있는 현실도 아울러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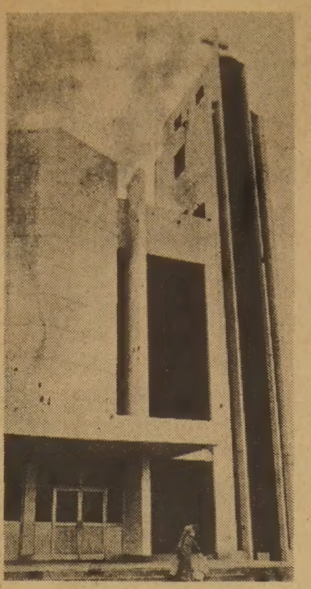
심포지엄 응답토의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와 종교로서의 기독교」란 제목으로 강연한 孫鳳浩교수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가지고있는 몇가지유사점을 들고, 어떤기독교단체가 용공적이란 비판을받는것은 이같은 유사점때문이기도하다고 말했다.

孫교수는 유사점으로 ▲현재의인간과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점 ▲지금의 부정적인 상태가 변혁될수있다고믿는점 ▲사회정의를 내세운다는점등을꼽고 이같은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공산주의가 영원히 일치할수없는 차이점도 동시에 열거했다.

孫교수에 의하면 그것은 첫째 공산주의는 모든악의 근원을 자본주의사회의 생산구조에서 찾고있으나 기독교는 하느님의 명령과 사랑을거부하는 인간의 종교적 결단으로부터 찾는다. 둘째는 공산주의는 혁명을통하여 잘못된 사회구조를 파괴, 해방을 시도하나 기독교에서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피조물이 될수있음을 믿으며, 사회구조의 개선은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기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사회정의구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정신과 방법의차이로 서로 협력할수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용공시비는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의 대체적인 결론은 기독교는 모든 전체주의와 싸워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심포지엄의 다음주제는 「민중신학의 과제와 방법」으로 정해졌다. 【李忠雨기자】



"좋은 세상을 좋게 살자"

"不信벗어나 서로 믿고 도와주는 마음을"

日曜日 아침을 위한 말씀

金學晩
<朱谷洞敎會목사>

이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 나쁘게 볼수도, 좋게 볼수도 있는 두가지면이 있다.

희랍과 로마 철학은 영은 善하게 창조되었고 물질세계는 惡하게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은둔주의도 생기고 금욕주의도 생겼다. 그러나 성서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흑암중에 빛을 만드시고 또한 하늘과 땅과 각종나무와 낮과 밤과 새와 고기와 육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만물을 소유하며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조화의 세상이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였다.

둘째는 인간자신과도 조화가 이루어졌다. 에덴동산의 인간은 마음에 평화가있었다. 공포나 염려나 불안이 없었고 만족하였다. 세째는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도 없었고 서로 사랑하였다.

네째는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않고 짐승이나 자연이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 그후 인간이 이 세상을 부조화의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조화의 세상을 재건하셨다.

예수를 이땅에 보내,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조화되고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이루고 좋은 세상을 건설해나가게 하신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좋은 세상을 좋게 살아가는 운동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세대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

도시는 빌딩의 숲을 이루고 농어촌에도 전기, 전화 수도 TV시설등 문화시설이 갖추어지고 고속도로의 혜택으로 전국 어디서나 일일 생활권내에 들고 동서방은 이웃집처럼 왕래하게 되었다. 수천명의 머리를 짜내어 계산하던 일들을 컴퓨터로 몇분에 처리하고 피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던것들이 기계화되어 두뇌만 움직이면 자동생산되는 새 시대에 살고있다.

한편 현대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과 파괴도 큰것은 사실이다. 기계화 되므로 메커니즘의 현상을 초래하여 인간이 소외되고 살인무기를 생산하여 대량살해하는 공포의 시대가 되었고 물질은 풍요하나 마음이 빈곤하여 불안과 회의에 빠져 자기 분열증에 빠져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좋게 살아갈수 있는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인간의 불행은 물질 자체나 과학 자체나 인간기능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질과 과학과 기능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대의 살길은 종교심을 회복하고 모든 지능을 선용하여 좋은 세상을 이루라고 하신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세상을 이 지구에 투고 살다가 그래도 완성하지 못한것은 예수가 재림하사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며 악의 완전한 심판을 하신후에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게 살아가야 한다.

프랭클은 『오늘의 위기는 신앙의 상실이나 경제에서 온 위기』라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대도시에서오는 소음, 인구밀집, 주택난, 교통의 혼잡, 권태, 피로, 불안, 초조, 오해, 상한감정 등등은 자기의 불신과 타인에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이 불신풍조를 물리치고 서로믿고 서로도와주고 노력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

이 세상에는 不公平한 것이 남아있다. 여기에 분노를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분노를 슬기롭게 처리해야한다. 『버드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너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그렇게 부러워하느냐」고 물었을때 가시나무대답은 「나는 옷을 가지는것이 원이 아니라 찢어버리는것이 원」이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다. 不公平에 분노하는 것은 좋으나 「나도 옷을 갖기위한 분노」라야한다.

너도 나도 다 못가지는 분노는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분은 현대사회의 不公平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의피라미드는크게 대기업적주의 가있고 가운데는 화이트칼라 틀이 있고 밑바닥에 최저의 기능공이나 실업자가 있다』—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사회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계급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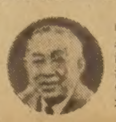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대중이 부르짖은 것은 임금이나 잉여나 경제착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중요한것은 사회참여, 지위, 권위, 인권, 창조적 질서등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정당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다. 인격의 가치가 같다.

물질의 차이가 있어도 그속에 사랑과 자유와 공의가 있어야한다. 너도나도 못입게 찢어버리는 우를 범치말며 경제의 압력이나 탄압의 죄를 범치말고 하나님이주신 공의와 사랑을 토대로 서로협조하고 도와서 좋은 세상을 건설하고 좋게 살아가야한다.

文豪의 名言

藝術에 의해서만 사는 보람 느낀다

谷崎潤一郞
<1886~1965>



일본의 耽美派작가. 東大中退, 和辻哲郞(와쓰지·데쓰로) 등과 2차 「新思潮」 간행. 刺靑(시세이 明治23년)을 발표, 그현란한 作風으로 文壇특이의 존재가됨. 「春琴抄」 「細雪」 「痴人의사랑」 등이있다.

줄거리의 재미란, 바꿔말해 물건의 組立法, 構造의 재미로움, 그리고 建築的 아름다움이다. 여기에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해도, 대저 文學에 있어 構造的 美觀을 가장 많이 갖춘것은 역시 小說이라 나는믿는다.

× × ×

인용은 「改造」誌(昭和2년)에 연재된 「饒舌錄」중의 일부로 芥川龍之介가 「谷崎는 기발한 줄거리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있는데」 줄거리가 재미있다는것에 藝術的價値는 없다—란 취지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一文이다.

谷崎潤一郞(다니자끼·준이찌로)은 大正期의 私小說중심의 文壇思潮에 반발, 「현재 일본엔 自然主義시대의 나쁜영향이 아직남아 安價한 告白小說體의것을 高級이라느니, 深刻하다느니하는 버릇이 作家측에도, 독자들편에도 있는것같다」고 비판한것을 생각하면, 이 一文은 한층 흥미롭다.

물론 이를 논의가 自作에대한 변호로서의 색채를 띤것은 사실이다. 또한 당시의 谷崎가 이같은 자기 作風을 변호하는 이론을 세울순 있으되, 그걸 뒷받침할 작품이없었던 흠은있다.

그러나 『나는 藝術을 열애하며, 오직 예술에 의해서만 사는 보람을 느낀다. 때문에 자기의 예술을 구축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것이다. 말할것도없이, 참된 예술은 생활과 일치해야만한다는것이기에, 나는 이후 엄격히 자기무력을 배척, 정직한 마음속의 투쟁을 해결이 날때까지 계속할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새로이 해 그가 실천가능하리라생각하는 野心을 표명한것으로 주목된다.

그의 文壇데뷔의 화려함은 스스로가 「나는 바이런卿의 예를 드는건 뭣하나 문단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의 하나로 손꼽혔다」(靑春이야기)고 말한것에서도 알수있다.

그의 官能的인 특이한 작품을 賞讚, 문단에 추천한것은 永井荷風(나가이·가후)로 그와함께 耽美派의 대표적작가로서 다니자끼는 大正昭和문단의 重鎭의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關東大震災후엔 東京을떠나 關西(간사이)에 주거를 옮겨 上方(가미가타) 文化傳統에 친숙, 惡魔主義의 전통으로 부터 벗어나 古典主義的경향을 띠게됐다. 昭和期를 통해본 그의 문학태도는 프롤타리아 文學에도 戰爭의 확대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感性美를 좇아 「永遠의 女性」的인것을 추구했음을 알수있다.

谷崎文學에 대해선 때로 思想性의 결여를 지적하는 사람도있으나 西洋과 東洋, 古典과 近代를 융합, 독자적 문학을 이룩해낸 점은 높이 사야할것같다.

李忠雨기자 巡禮記

「한국의 聖地」單行本출간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한국의 聖地」가 본도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한국일보 문화부차장 李忠雨기자가 취재한 이 책에는 한국천주교회의 요람이라 할수있는 天眞菴에서 시작, 제주도 觀德亭에 이르기까지 남한지역에 있는 모든 순교성지들이 사진과 지도와 글로 생생하게 묘사돼있어 한국천주교회 2백년의 피어린 발자취를 읽게 따라가 볼수있게하고있다.

金壽煥추기경은 추천사에서 『언론인으로서 할수있는 말씀의 使徒的역할을 했다』고 李기자의 노력을 치하하고 『이책이 이땅의 복음선교에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의告白

尹男慶 <작가>

絶望속 터뜨린 시원한痛哭

生命水로 解渴한 나의영혼

소금물을 들이켜듯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기만 하였으며, 무엇으로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내 욕구불만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오 영혼의 허전함이라고 깨닫기전까지는 안타까와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인간은 발이 땅에 닿아야만 뛰어오를 생각을 한다더니 뒤늦게 시작한 소설도 쓰기 싫어졌고 무엇 하나 재미있는것이 없었다. 불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 온통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그 무렵 언니의 대학동창생이 내게 물었다. 『무엇이 피로와 그토록 찌푸리고 다녀?』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무엇보다 죄의식때문에 못 살겠어요』 『좋은 예수를 믿지않군』 『내가? 예수를 안믿었다니요. 교회에서 가난』 그러면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3장5절을 읽어주었다.

『그 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때 나는 성경책 위에 엎어지며 통곡을 터뜨렸다. 예수가 바로 내 죄때문에 찔렸고 나를 고쳐주려고 채찍에 맞았다는 실감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사실을 믿는 집사요, 장로부인이고 또 할아버지께서도 장로님인데 다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때문에 이 땅위에 오셨지요?』 『그거야 온 세상을 위해서지요』 『그 온세상 속에 동생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는 사람만이 죄와 불안과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된 것이다. 내영혼은 목마르지않은 생명수로 이제야 해갈을 하게 되었다.

流星의 賦

<129>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⑮

심의겸에 관한 유언(流言)이 나돌았다.

『일찍이 상중(喪中)에 있을때 심의겸이 그의누님인 대비(大妃)를 비밀리에만나 기복(起復)하여 권세(權勢)를 전담할 획책을했다』는 것이다.

이 따위 유언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군가의조작이란 것이 분명했음에도 동인들은 격분했다. 평소 심의겸을 미워하던 이발은 이기회에 그를 내쫓으려고 서둘렀다. 정인홍도 분개하여

『의(義)로서 나는 이놈과 같이 조정에 있을수 없다』고 별렀다.

이이와 성혼(成渾)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오. 대비가 죽고 없는 이 마당에선 의겸은 외로운 새 새끼나 썩은 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소. 조정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고 해서 해독될 일이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오. 그러한 자를 만일 탄핵한다면 인심은 흉흉해지고 좋지 못한 일의 발단이 될 것이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오』

이발은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이이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인홍은 강경했다.

정인홍은 『차제에 정철까지 탄핵해야겠다』고 별렀다.

『만일 정철까지 탄핵하려고 들었다간 대사헌 이이가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오』

하고 이발이 말렸다.

정인홍은 수차 이이에게 심의겸의 탄핵문제를 두고 권했으나 이이가 듣지않자 단언했다.

『나는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겠소』

이발이 이이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시배(時輩=東人)들이 공을 깊이 믿지 않는 것은 공이 정에 끌리어 의겸을 두둔하기 때문이오. 공이 지금 이 사람을 끊어버린다면 사류가 다 공을 신뢰하게 될 것이오. 그리 했을 때 서인(西人)쪽의 어진 선비들을 점차로 수용(收用)하여 더욱 보합(保合)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심의겸을 논핵하지 않으면 덕원(德遠=정인홍)이 낙향하겠다고 하니 어찌 가석(可惜)하지 않습니까』

이이는 이발의 청을 간단하게 물리칠수 없었다. 동인에 속한 사람이긴 해도 이발은 더불어 국사를 논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라, 이발의 심정을 되도록이면 해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밤 이이는 성혼을 앞에 하고 그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제 심의겸을 논핵하려 하는 것은 사리에 마땅하지가 않다. 하지만 시배들이 나를 서인 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정인홍의 주장이 옳지않다는 이유로 내가 벼슬을 떠나면 그들은 반드시 이 일을 구실삼아 나를 공격할 것이 아닌가. 공격이 무서운것은 아니지만 내가 떠나고 사류가 다 흐트러지면 장차 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 끝나자 성혼도 또한 장탄식을 했다. 그러나 울며 겨자를 먹듯, 조정의 분열을 가급적으로 막아 장차의 화합을 꾀하기 위해선 도리없이 정인홍의 주장에 따라 주어야겠다는데 두 사람의 의견을 모으지 않을수 없었다.

소식

佛루르드서 聖體大會

제42회 萬國聖體大會가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대회참석여부가 아직 밝혀지지않은 가운데, 16일부터23일까지 프랑스 루르드에서 거행된다.

76년 미국 필라델피아 이래 5년만에 열리는 이번 성체대회는 「새로운 세계를위해 떼어나누어진빵, 예수그리스도」를 주제로 8일간 계속된다.

基督敎放送 돕기大會

한국기독교 1백년 대신회 준비위원회(위원장 申賢均목사)는 기독교방송 지원을 위한 서울지역 연합부흥 전도대회를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祭基洞 동도교회에서 갖는다.

이준비위는 오는 83년에 한국교회 1백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이번에 기독교방송을 돕기위한 집회를 갖게된 것이다.

咸興·德源免屬區長

교황청은 倭館에 있는 성베네딕도 대수도원 李東鎬 아빠스를 咸興교구및 德源免屬區長서리에 임명했다고 지난달19일자로 주한교황대사관을통해 알려왔다. 이로써 李디모테오몬시뇰은延吉교구장서리직만을 맡게되었다. 이같은 임명은 국제정세변화와 함께 태동하고 있는 中共및 북한선교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포석으로 풀이되고있다.

佛敎美展 요강發表

불교曹溪宗 총무원은 제10회 불교미술전람회를 오는11월10일부터 19일까지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요강에 의하면 공모 대상은 조각불화 공예단청 범종 서예사진등 7개부문이고 출품작 접수는 10월5일부터말일까지. 상금규모는 1천만원이다.

花郞大會 교육훈련

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중에 열리는 화랑대회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牛耳洞 道詵寺에서 전국 각지부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화랑대회의 취지포교단창설 앙케트조사요령 등을 중점교육하게된다.

麻谷寺서 林間學校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새로운 포교의 일환책으로 오는 8월7일부터 10일까지 公州 麻谷寺에서 불교청소년 임간학교를 개설키로했다.

임간학교 참가희망자는 8월3일안에 교화연사무실 (曹溪8165)로 접수하기를 바라고있다.

솔뫼「기도의 집」起工

金大建神父의 탄생지인 솔뫼성역화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21일 성역화사업의 제1단계 공사인 기도의 집 기공식을 충남 唐津郡 牛江面 松山里 현지에서 갖기로했다.

가톨릭大學生 연수회

가톨릭대학생 협의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大田 가톨릭 교육회관에서 전국회장단및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교회창립 2백주년을 앞두고 민족사안에서 천주교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는 학생들의 발제강연및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아세아선물센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알리가 自宅초청 한국障碍兒들 신나는 2시간

우람한팔에 매달리고 우리민요합창도

【로스앤젤레스支社】韓美어린이 보호회(대표 윤양지)와 부인회(회장 인영희) 초청, 본사후원으로 美國을 방문중인 한국의지체부자유 어린이 일행 10명이 3일하오 프로복서 무하마드·알리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하오 로스앤젤레스 시내프리몬트 플레이스의 거대한 알리자택을 방문한 한국 어린이들은 우람한 권투왕의 팔목에 매달리는 재롱과함께 『한국을 방문할때 또다시 만나자』는 알리의 약속을 받는등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알리는 1시간가량 손수건 감추기·카드놀이등 마술을 보여주었으며 어린이들은 아리랑등 우리민요를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 답하기도 했다. 알리는 한국의지체부자유어린이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3일 자택으로 초청했다.

한국女子、破竹의 4連勝

존즈盃국제籠球 和도이겨 美와공동先頭

【臺北10日鄭=聯】韓國여자농구대표팀(善德)은 10일 臺北 中華체육관에서 속행된 제5회 존즈 컵쟁탈여자농구대회 결승리그 4일째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63―39로 물리치고 4승을 기록, 美國과 함께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 韓國은 전반 숏부진과 네덜란드의 장신에 밀려 고전했으나 金和順·鄭美羅의 골밑활약과 외곽숏으로 전반을 27―16으로 앞섰다. 후반서도 韓國은 朴贊淑이 심한 마크를 당하고 중거리숏이 부진, 한때 31―24까지 추격을 받았으나 후반10분이후 속공과 재빠른 패스워크로 득점기회를 살려 완승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무패를 기록했던 네덜란드는 이날 패배로 3승1패가 되어 일단 우승권에서 밀려났다.

한편 西獨은 이날 뉴질랜드를 82―61로, 自由中國 靑팀은 自由中國 白팀을 74―73으로 각각 제압했다.

◇결승리그 제4일전적

韓國 63 (36―23, 27―16) 39 네덜란드
(4승)　(3승1패)

西獨 82 (36―45, 46―16) 61 뉴질랜드
(1승3패)　(4패)

自由中國靑 74 (45―35, 29―38) 73 自由中國白
(3승1패)　(1승3패)

한국、美大學선발에 逆轉劇

◇美國의 2회말공격。무사에서 포볼을 골라 나간 3루주자 골드슨이 7번 슈미트의 犧飛로 홈인, 1―1 타이를 이루었다。

9회初 5安打로 4得點 8―6

朴鍾勳 連續 決勝홈런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는 개막 벽두부터 타이와 역전을 거듭하는 격전을 펼쳤으나 2차전서도 한국대학선발은 朴鍾勳의 2게임 연속홈런으로 2승을거뒀다. 한국 대학선발은 10일밤열린 1차전서 9회까지 4―4로 비긴채 승부를 가리지 못해 11일 계속된 연장경기서 11회말 선두 3번 朴鍾勳의 우월 1백10m 결승 솔로·호머로 네번째 타이를 깨뜨리고 5―4로 승리, 서전을 장식했다. 미국대학 선발은 이에 뒤질세라 이어 벌어진 2차전서 5회말 3번 스텁스의 장쾌한 우월 솔로·호머 등 강타력을 과시했으나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국대표겸 대학선발 유격수인 吳大錫은 1차전의 2실책에 이어 2차전서도 2실책으로 실점을 기록, 朴榮泰와 교체되었다. 2차전서도 2만명이 넘는 팬들이 서울운동장에 모여 양국대학선수들의 선전에 갈채를보냈다.

첫날 나이터 경기서 9회말 연속 3포볼로 맞은 무사만루의 찬스를 졸공으로놓쳐 연장전을 가져야했던 한국은 11회말 朴鍾勳의 굿바이홈런으로 귀중한 1점을뽑았다. 10회까지 5타석 1안타에그쳤던 朴鍾勳이 11회말 선두타자로 왼쪽타석에 들어서자 마자 미국의 다섯번째 투수 랭의 초구를 강타, 열광하는 우측 외야스탠드에 굿바이홈런을 선사했다.

첫경기를 아깝게 놓친 미국은 2차전 1회초 패스트·볼로 또다시 한국에 선제점을 빼앗겼으나 2회말 슈미트의 희생플라이, 3회말 골드슨의 적시타로 간단히 전세를 뒤집고 4회초에는 한국의 3루수, 유격수의 잇단 2실책으로 1점을 추가했다. 5회말에는 1사후 3번스텁스가 우월 1백30m 솔로·홈런을 날렸다.

◇1차전

미국	0	1	1	0	0	1	0	0	1	0	0	4
한국	0	2	1	0	0	0	1	0	0	0	1	5

▲홈런=러셀(9회초·미국) 朴鍾勳(11회말·한국)

◇2차전

한국	1	0	0	0	0	0	1	2	4	8
미국	0	1	1	1	1	0	0	2	0	6

▲홈런=스텁스(5회말·미국)

세계青少年야구개막

12個팀 出戰…캐나다·美國 첫勝利

【뉴어크(美오하이오州)李鍾南특파원】제1회 세계 청소년야구대회가 11일(이하한국시간)美國동부 오하이오州뉴어크市 돈·에드워즈구장에서 11개국 12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됐다.

첫날 A조에서 캐나다는 네덜란드를 5―4로, B조에서 美國은 10―7로 호주를각각 이겨 1승씩 기록했다.

12개팀을 2개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벌이고 각조1위 팀만이 우승결정전(3전2선승제)을 벌이는 이번 대회에서 A조에 속한 한국은 12일상오9시 뉴어크·오일러즈와 첫대결을 벌인다.

아마복싱聯 회장에 任彦彬부회장 選任

대한아마복싱연맹은 10일 5인전형위원회에서 任彦彬(52)부회장을 11대회장에 선임하고 체육회에 승인을요청했다.

연맹은 지난6월10일과 7월6일등 두차례에 걸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5인전형위원회에 일임했었다.

연맹은 체육회의 회장승인이 나는대로 새집행부를 구성, 오는10월의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준비작업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키로했다.

晋州 東明中 우승

中高배구·女中部 馬山第一、서울誠庵눌러

【釜山=聯】晋州 東明中이 제16회전국남녀우수중고배구대회겸 제7회 회장기쟁탈전국남녀중고대회 남중부서 우승, 79년 팀창단이후 처음 전국대회 제패의영예를 안았다.

11일 釜山九德경기장에서 속행된 대회4일째 남중부리그 최종전에서 晋州東明은 좌우에서터진 오픈공격과 블로킹을바탕으로 홈코트의 東亞를 15―9, 15―7로 꺾고 2승을 기록, 우승했으며 東亞는 1승1패로 2위를차지했다.

여중부서는 A조의 馬山第一女中이 서울誠庵을 2―0으로 누르고 3승을기록, 예선수위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 2승1패로 예선B조 2위팀인 釜山德明과결승진출권을 놓고 12일 겨루게 됐다.

또한 강호 서울一信女中은 3승으로 예선B조 1위를차지하고, 馬山第一에 패해 2승1패로 예선A조2위를 차지한 서울誠庵과 준결승서격돌한다.

◇제4일전적

▲여중A조
마산제일 2 (15―9, 17―15) 0 서울誠庵
순위=①제일 3승 ②서울 2승1패 ③부산은하 1승2패 ④부산수정 3패

▲동B조
일신 2 (15―3, 15―8) 0 경복
대구 2 (15―5, 16―14) 1 남부
순위=①일신 3승 ②명산 2승1패 ③경복 1승2패 ④남성 3패

◇제4일전적
▲남중부리그
진주 2 (15―9, 15―7) 0 동아
순위=①동명 2승 ②동아 1승1패 ③이리남성 2패

大會新 47·타이 8個

회장旗육상 男일반趙漢秀·孫榮杓2관왕

제2회 회장기쟁탈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육상대항경기가 1일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체전서울시예선전을 겸해서 진행, 대회신기록 47개, 대회타이 8개가 수립되었다. 12일 최종일에는 20㎞단축마라톤만 열린다.

이날 경기에서 남일반부의 趙漢秀(경희대)가 5천m서 16분10초2로 전날 1만m에 이어 2관왕이 되었으며 孫榮杓(성대)는 남일반 1백10m허들에서 15초6을 기록,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 역시 2관왕이 되었다. 남고부의 배장호(한양공)는 투해머에서 45m16을 던져 종전기록을 9m02를 능가하는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제2일기록(각종목1위)

▲남일반 5천m=조한수(경희대) 16분10초2(대회신) ▲동높이뛰기=도흥열(성신) 1m95 ▲동투포환=김현대(일반) 11m71 ▲동1백10m허들=손영표(성대) 15초6(대회신) ▲동1천5백m=유귀흥(경희대) 4분3초6(대회신) ▲여일반투원반=신언영(세종대) 33m02 ▲동1백m허들=이태인(세종대) 17초7(대회신) ▲남고높이뛰기=한문봉(체육고) 1m90 ▲동투해머=배장호(한양공) 45m16(대회신) ▲동투포환=이종민(용산공) 15m16 ▲동1백10m허들=신덕선(경기상) 14초8(대회신) ▲동2백m=이성복(서울기공) 23초F ▲여고1백m허들=안영미(이화) 16초1 ▲동넓이뛰기=이화순(상명) 5m35 ▲동투원반=최선아(체육고) 38m02

亞洲게임일정 確定

來年11월 뉴델리서

【뉴델리10日AP=聯】1982년도 아시안·게임이 내년 11월19일부터 12월4일까지 印度 뉴델리에서 개최된다고 10일 공식 발표됐다.

美洲卓球여행 ④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원래大會모습은 家族끼리의卓球잔치

프로체계없어 有名선수用具팔아生計

한국 黃男淑·安海淑·中共 黃玲등에 사인攻勢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의 원래의 모습은 아버지와 딸, 할아버지와 손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라켓을 들고 어울리는 탁구잔치。어떤 테이블에는 대머리의 경감님과 15살정도의 꼬마가 맞서기도하고, 어떤 테이블에는 청년남녀의 혼성복식조와 중년의두 남자복식조가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각 등급에 맞는 참가자들끼리 찾아다니며 경기를 치른 후 대회본부에 전화표를 넘겼으며 경기를 주재하는 심판원은 찾아볼수도 없었다。선수들 자신이 카운트하기도하고 그 동료중 내키는 사람이 무라도 심판을 봐주기도 했다.

한국과 中共, 또는 스웨덴등의 수준높은 경기나 벌어질때면 자신들의 경기를 제쳐놓고 몰려서서 동그래진 눈으로 탄성을 지르다 탁구용품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몰려가 사인을 받아왔다.

경기장 바 넓은 홀에는 개막일부터 『US 챔피언 D.』 『챔피언』 대니·시일러』『챔피언 D. J』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탁구용품 판매대가 설치되었다.

이들로 보면 全美오픈에 참가한 외국선수들은 시범경기단이나 마찬가지였다。어떻든 모두 등급에 따라 참가신청금을 지불하고 또 상위입상자는 정해진 상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아직 프로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美國탁구계에서 살아가는 프로선수들의 생활모습이었다。경기장에서 이기고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손님들이 판매대앞으로 몰려들었다.

뉴욕에서 이름을 날리던 용모의 세계여자챔피언 黃男淑, 安海淑과 中共의 黃玲, 張德英, 李振恃등은 이곳저곳에서 달려드는 美國탁구팬들의 사인요청에 시달렸다.

張鈞漢단장은 한국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때도 단장으로 참석했던 中共의 대회기술사를 마다하고 리메이·인에 숙소를 정하고 인근 차이나·타운에서 눈에 띄지않은 연습으로 대회에 신중히 대비하고 있었다.

여자부에는 日本의 불참으로 中共과 한국의 결승 대결이 거의 확정적이었다。그러나 남자부에는 中共, 한국외에 개인기가 뛰어난 스웨덴, 美國, 동구선수들을 많이 확보한 캐나다등이 있어 초반부터 대접전이 예상되었다。특히 남자 단체전이 세계선수권의 9단식경기와는달리 4단식 1복식의 방식을 택해 한국의 고전이 예상되었다.

【方福漢기자】

데이비스盃테니스

렌들、매켄로 물리쳐

豫想엎고3대0…체코에 1勝안겨

【뉴욕10日AP=聯】체코의 렌들은 10일 뉴욕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준준결승 단식경기에서 예상을 엎고 금년도 윔블던대회 패자인 美國의 존·매켄로를 3시간15분의 혈전끝에 3―0(6―4, 14―12, 7―5)으로 물리치고 체코에 첫 1승을 안겨줬다.

이번 데이비스·컵대회 준준결승의 美·체코戰에서 美國은 단식에 랭킹1위인 매켄로와 3위의 지미·코너즈를, 체코는 제4위인 렌들과 토마스·스미드를 각각 출전시켰다.

양국은 11일 복식경기에 이어 12일 한차례 더 단식경기를 갖는다.

렌들은 최근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에서도 준준결승에서 매켄로를 물리친바있다.

名골키퍼 咸興哲씨 城南 豊生高코치로

『자라나는 선수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신생고교팀을 맡았으니 선뜻 무엇부터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않아요』

지난날 韓國축구의 명수문장이자 세번이나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咸興哲씨가 城南의 신생팀 豊生高코치직을 맡았다.

讀者포스트

訃音

▲李鶴이씨(聯合通信 地方部長 모친)=10일밤 11시35분 서울順天鄕병원서 별세。향년73세。발인 12일상오 11시 동병원 영안실。장지 신세계공원묘지。연락처 ⑱948

開業

◇安東▲계림조명(주인 유기훈)=安興洞 276 남방아케이드 앞②7152·1735 ▲오비광장=三山洞 시청앞②284 ▲회덕다실=大華洞 파출소옆③1305 ◇光州▲세진방역(방역소독)=東區忠莊路4街14 화니백화점 ⑦010955

골프코너

골프場 예약날자 火曜日로

漢城27홀、龍仁에 新設키로

◆…한국 골프장업 협회(KGCA)는 말썽이 되고있는 일요일 부킹제도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1일 부터 시행키로했다.

KGCA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골프장의일요일 예약일자를 매주화요일로 통일키로했으며 현재한달에 한번있는 회원의날을 1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일요일에는 각골프장이 단체팀에 대한 예약을 1개팀 이상 받을 수 없도록했고, 단체팀의 예약시간은 12시 이후로했다。그리고 각골프장 대표자는 예약 업무의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지며, 예약담당자를 수시로 교체토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해도 고질화된 병폐가 쉽사리 고쳐질는지 두고볼일.

◆…漢城컨트리(대표 姜秉濬)가 경기도 용인군구성면 보정리에 골프장 신설허가를 받아 곧 착공하게 되었다。대지는 41만평으로 27홀 규모.

漢城의 신설허가로 在日동포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산성, 여주, 부평등 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일부 골프장이 증설허가를 신청해놓고 허가를 받은것 처럼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증설허가를 신청한 골프장은 모두3개소。이 가운데 한골프장은 허가를받은 양 회원 모집광고를 내는 등 변칙행위를 하고있으며 이전에도 골프장내에서 무허가 차량운행, 수질 오염 행위등으로 말썽을 빚은적이 있다.

◆…한국골프협회는 9월 자유중국서 열리는 아마·팀·골프대회 출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오는22일부터 24일까지 관악서 갖는다。그리고 강화훈련선수 트레이닝을 14일 재개, 8월 30일까지 부평, 관악, 대구서 갖는다.

◆…明星컨트리는 클럽·하우스 주위에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콘도미니엄 모델 18평형과 36평형을 건설, 회원들에게 전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근교 골프 연습장은 30여개。연습장의 인기도는 소속프로의 인기도에 비례하고 있다。금년초만 해도 金承學, 金永一, 金聖完이 있는 워커힐이 단연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 있은 오란씨 오픈에서 상위에 랭크된 崔上鎬, 趙皓相의 활약에 힘입어 이들이 소속된 안포연습장이 워커힐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는것. 【勳】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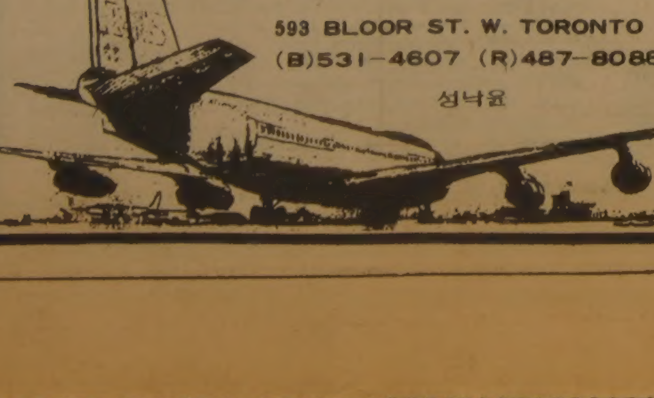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컴푸터 시스템으로 신속처리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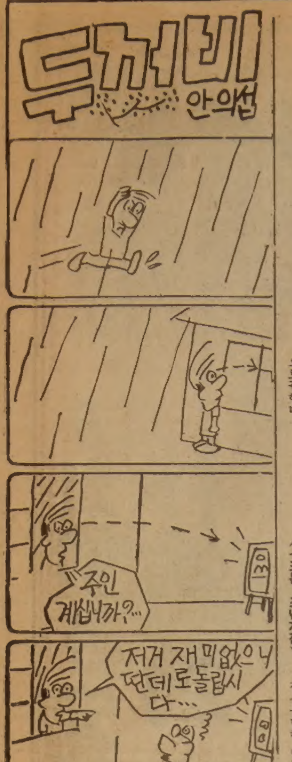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아 세 아
건재약방
선물센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 · 김영철



택시요금並算制 大邱부터

交通部방침 내일 關係官회의서 細部지침확정

"料金 간접引上"是非속에 서울·釜山 효과보아 단계적實施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병산제가 大邱에서 시험실시된다。교통부는 택시운전사들이 회사에 내는 입금액과 자신의 일당수입을 벌기위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일당도급 입금제가 거리질서를 파괴하고 교통사고의 주인이 되고있다는 내무부등 관계기관과 택시조합 연합회등의 건의에 따라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에서의 병산제 실시를 신중히검토 해왔는데 현재의 도로사정으로 봐 택시요금의 간접적인 인상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일괄적인 이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고 대신 일부지역에서 먼저실시, 그결과를 보기로 한것이다。

"무리한運行없게"택시組合등서 건의
운전사月給制 도입없인 成果없을듯

교통부가 이번에 大邱를 병산제실시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것은 大邱市가 ▲지하철건설공사등이 없어 도심지의 교통소통이 다른 대도시에비해 원활하고 ▲차량의 접촉사고등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높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계획은 13일열리는 각시도 상공국장, 운수담당관회의를거쳐 세부지침이 확정된다。

교통부는 지방도시에서의 병산제실시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나 합승행위의 근절및 교통사고율의 감소등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경우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로 단계적인실시를 강구키로했는데 서울에서의 병산제실시는 지하철2호선이 완공되는 오는83년말 이후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11일 택시요금의 병산제는 운전사들에게 입금액과 일당을 벌기위한초조심리를 감소시켜 과속, 난폭운전, 중앙선침범등의 고질적인 교통사고요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택시운전사의 입금체계가 월급제로 전환되지않고서는 요금체계 속에서 합승행위가 계속되는 현재와 같은 운행풍토속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에는 6만3천7백1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있으며 이중 서울에는 2만8천1백21대, 大邱市를 포함한 경북에는 5천7백68대가 있다。

"勤所稅부담줄여야"
한국勞總, 民正黨정책반영 건의

한국노총(위원장 鄭東揆)은 11일 상오 서울 여의도반도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위원장 李鍾漢외원)11명을 초청, ▲입금억제시책 시정 ▲최저임금제의 단계적 도입 ▲노동관계법개정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 인상등 당면 노동정책을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노총은 이날『전 산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2만5천8백37원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있으며 산업별·직종별등 으로 심한 임금격차를 나타내고있다』고지적,『입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위해서 입금억제시책을 고치고 노·사·정 3자구성 기구를 통한 최저생계비를 조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임금체불의 방지를위해 ▲입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체불임금에대한 이자지급의무화 ▲임금 채권보장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줄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7억5천만원의 위조약속어음을 만들어온 李一來씨등 11명 외범인들。

약속어음 8億臺위조
11명구속 24장回收 1백26장 流通중
銀行信用좋은 企業體대표이름 盜用

서울시경은 11일 신용이좋은 기업체 대표명의의 은행약속어음을 위조, 사용해 온 서울 江西區 木洞270의46 삼진금속 공업사대표李一來씨(47)등 11명을 유가증권위조및 사기등의 혐의로구속하고 姜五植씨등 2명을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씨와 金憲鎬씨(45·永登浦區文來洞5街19)등은 주물공장을, 색인쇄사 대표 權赫成(44·永登浦區 新吉洞 대신맨션아파트B동203호) 辛武龍(30·冠岳區新林2洞131의23) 朴宗澤씨(31·龍山區龍門洞5의33)등 3명은 인쇄업을, 李在洙(43·九老區九老3洞798의83) 張實根씨(51·江西區新亭洞466의11)등 2명은 도장포를운영하다 영업이 제대로되지않자 지난4월부터 액면을 기재하지않은 약속어음 1백50장을 만들어 許完洙씨(57·九老區溫水洞山12)등 6명에게 1장당 30~50만원씩받고 팔았으며 許씨등은 금액을 마음대로적어 사채업자들에게 할부고환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위조, 사용해온 약속어음가운데 24장은 경찰이 회수했으나 1백26장은 아직 시중에서 유통되고있으며 이들이 기재한 총액면은 7억5천만원이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터면 列車전복
京釜線서 철길에 콘크리트枕木 깔아
貨物열차가 발견 危機넘겨

【金泉=鄭】京釜線철길위에 콘크리트로 만든 침목을 걸쳐놓고 열차전복을 기도한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10일밤 11시40분께 경북金陵郡牙浦面松川洞 京釜線하행선(서울기점27Km·9Km지점)에서 길이90cm의 콘크리트침목 1개가 가로놓여 있는것을 부산발 龍山행 제1004호 화물열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침목을 발견한 화물열차는 牙浦역에 긴급연락, 역무원 尹炳洙씨(44)가 서울발 釜山행 제116호 목금열차에 다시 무전연락, 침목을 제거해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않았다。

한편 수사에 나선 金泉경찰서는 인근 불량배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설치, 용의자를 찾고있다。

內緣의妻어머니 칼로찔러죽여

11일상오8시5분께 서울 江東區遁村4洞 遁村시영아파트125동305호 李金花씨(36) 집안방에서 李씨의 내연의 남편 鄭龍根씨(33·택시운전사·서울道峰區雙門洞460의329)가 길이20cm가량의 과도로 李씨와 친정어머니 許天順씨(65)를 마구찔러 許씨는 그자리서 숨지고 鄭씨도 목을 찔러 자살했다。

李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중이다。

李씨는 10년전 남편과 사별한뒤 許씨와 동생 榮俊군(19)및 두아들과 함께 살아오다 지난해12월 다방에 나갈때 알게된 손님의 소개로 鄭씨를만나 2개월전부터 동거해왔다。

81년도 미스코리아 金昭馨양 마닐라로

81년도 미스코리아 「美」 金昭馨양(18·사진)이 오는26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미스영 인터내셔널대회에 참가하기위해 11일상오9시발 KAL621편으로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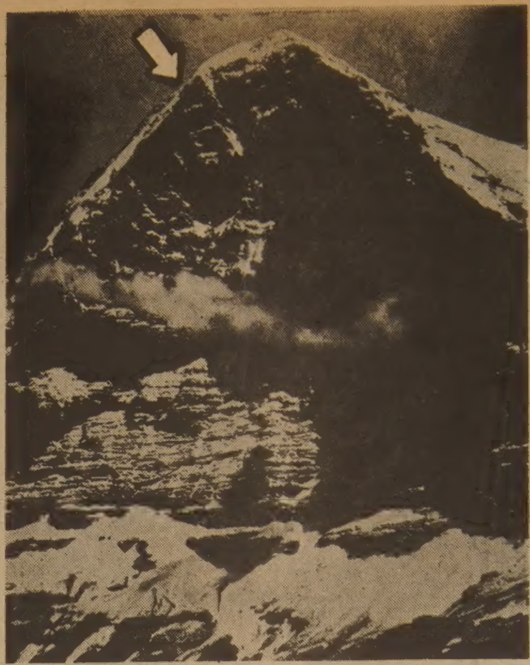
北傀간첩1명 日警察에 잡혀

【東京10日AP=聯】접선장소를 찾지못해 남부 일본의 휴우가(日向)市부근 해안가를 헤매던 북괴간첩 黃成國(62)이 일본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체포됐다고 일본경찰이 10일 발표했다。

경찰은 黃이 일본을 빠져나가 북한으로 돌아가기위해 미야자끼縣 휴우가(日向)市부근해안지역을 거닐던중 팔에 부상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지난6월24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黃은 경찰진술에서 오오사까(大阪)市를 중심으로 북괴간첩들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지난80년7월 일본에 밀입국했음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어 黃의 일본잠입을 도운 日本人 영화감독 사와모또·다까오(47)를 지난1일 체포했다고 말했다。


◇世界3大氷壁…아이거北壁 — 한국알프스등반대가 참변을당한 아이거北壁。아이거北壁은 마터호른 그랑조라스와함께 세계3대빙벽으로꼽힌다。〈↑표는 조난지점〉

登攀대장등 遺骸 내일還國

알프스慘變 火傷 두隊員 경과좋아

올해 6명숨진 難코스, 비박중 벼락이…

【파리=金聖佑특파원】알프스의 아이거峰(해발3천9백70m)에 도전중인 81한국알프스등반대(대장 申建浩·29·서울銅雀區鷺梁津2洞山28) 대원8명중 4명이 지난8일 하오8시30분(한국시간9일상오 3시30분) 아이거峰西壁능선(해발3천1백20m)에서 비박(露營)을 준비중 벼락에맞아 대장申씨와대원 宋東圭군(25·漢陽大3년·서울江西區禾谷洞389의2)이 현장에서숨지고 대원黃昌善군(26·崇田大·서울銅雀區上道1洞126의86)과 金爽勳군(26·建國大·서울龍山區漢江路1街216)등 2명이 화상및 타박상을 입었다。【일부지방 중복】

이날 등반대원8명은 2명씩 4개조로 나뉘어 1개조는 베이스캠프에 남고, 3개조가 정상등정을위한 정찰등반에 나섰는데 제1조의 南善祐대원(26·中央大산악회OB)과 曺永善대원(26·弘益大산악회OB)등 2명이 정상을향해 떠난후 제2조와 제3조원들은 기상이 악천후로 급변하자 빙벽틈에서 비박을 준비하다가 벼락에맞아 참변을 당한것이다。

이들의 조난사실은 정상정복후 하산하던 제1조의 두동료에의해 발견돼 베이스캠프에서 대기중이던 부대장 呂松弼씨(28·崇田大산악회OB)와 尹日雄씨(29·慶熙大산악회OB)에게 무선으로 통보됐고 베이스캠프는 다시 스위스경찰과 한국대사관에 조난사실을 알려,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해는 현지 경찰의 헬機구조대에의해 인터라켄 시립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부상을당한 대원黃군에 따르면 이날 비박을 준비하던 중 배낭안에 들어있던 철제 등산장비에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申대장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날아가 숨졌고, 나머지 비들이 녹아내렸고 金군의배낭에 들어있던 가스버너가폭발, 전신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조난사실을 발견한 제1조의 두대원에 따르면 이날 사고지점까지 하산했을때 숨진 申대장등 동료대원 2명의 유해를 발견했고, 나머지 대원2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 하산해 내려오던중 부상을입은채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고있는 두부상동료를 발견했다는것。

한편 스위스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부상당한 두대원의 치료 경과는 매우 좋은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 2명의 유해는 11일 하오 현지에서 화장한후 오는13일 하오 7시30분 대한항공편으로 金浦로 옮길 예정이다。

한국등반대가 조난을 당한 아이거北壁은 세계의 등산가들 사이에 난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스위스경찰에 따르면 금년에 들어서만도 8전의 산악사고가 발생, 6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81한국알프스등반대는 한국대학산악연맹의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40일간의일정으로 지난달 30일 출국했었다。

女軍헬機 操縱士 탄생
金福善중위 陸軍航空학교 졸업
試範비행에 가족·將兵환호

우리나라 첫 여군조종사가 배출됐다。

11일상오 육군항공학교에서있은 제12기 항공조종사졸업식에서 여군장교 金福善중위(27·서울)가 남자조종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헬리콥터조종사의 자격을 취득한것이다。

建大영문과를 졸업한 金중위는 78년8월 여군장교로 임관했으며 이번에 항공학교 헬기 조종사과정을 지원, 복잡한 조종기술과 전술훈련, 담력과 체력단련, 악천후 비행훈련등 어려운 과정들을무사히 마치고 육군최초의 여군조종사가되었다。

이날 金중위는 졸업식에이은 시범비행에서 UH1H헬기에 올라 그간 헌써닦은 솜씨를 발휘함으로써 수많은장병과 가족친지들의 박수를받았다。

印견직공장 倒壞 惨事
28명死亡 2백여명埋沒
보일러爆發로

【뉴델리10日UPI=聯】인도 봄베이北쪽250km지점의 수라트에 있는 3층짜리 직공장건물이 9일밤 보일러 폭발로 무너져 28명이 숨지고 2백여명의 종업원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있다고 10일 인도보도들이 전했다。

인도 UPI통신과 인도방송들은 공장종업원들이 근무교대를하던 9일밤 보일러가 폭발, 공장건물이 무너져내렸다고 밝혔다。

海軍사관후보 任官
國防長官상 朴景彬소위

해군제72차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11일상오 해군제2사관학교 졸업연병장에서 李銀秀해군참모총장등 군고위장성과 후보생들의 가족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朴景彬소위(사진·25·서울大대학원)가 국방부장관상을, 申鉉德소위(25·慶熙大)가 해군참모총장상을 각각 받았다。

〈前교통부장관〉姜瑞龍씨 別世

교통부장관을지낸 변호사 姜瑞龍씨가 11일상오10시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64세。발인은 13일상오9시30분 경희의료원영안실。장지는 경기廣州郡中部面 상산곡리 가족묘지。연락처 [illegible]

한국일보 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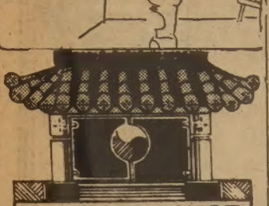
雨期의 詩

宣斑柱

1
후두둑 뿌린 장마비
舍窓에 珠簾이 된다。
그 珠簾 뒤에 앉은
아련 그리운 이。
微動도 없이 섰다 꺼지는
都會에서 만난 女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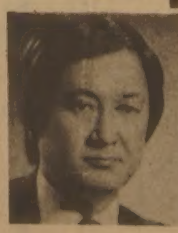
2
장마 끝나는대로
편지를 띄우리라。
어릴 때 비에 젖던
故鄕의 그 오솔길
지금도 젖어 있는가고
그 오솔길에서 만난 女人。

3
長安路에 내리는 비는
江을 건너지 못한다。
무지개 한번 선일 없는
굳어 있는 中浪川。
지나다 보면 面牧洞
안개 서린 그림이 아닌。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416) 532-2727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대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대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영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어린이헹가래치는 에스키모祝祭

◇7월이오면 에스키모부락은 축제로 들뜬다。축제의 절정은 바다사자가죽으로만든 모포태우기다。먼저 그해에 가장많이 사냥을한 젊은이를 하늘높이 태운다。바다를 더멀리 바라보고 다음해엔 더많이 사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다음에는 마을어린이들을 헹가래쳐서 즐겁게 해준다。
【세인트로렌스갬블마을 (알래스카) =로스앤젤레스 金英錫기자찍음】

國家별로「필수약」指定 藥名도 母國語 표기를

藥品의 逆機能도 경계해야

유엔 亞·太소비자地域자문위 촉구

『각국정부는 그나라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필수약」을 지정해서 명명하도록하며 필수약품의 명단은 모국어로 표기하도록하고 의사가 약을 처방할때도 모국어로 기재케하여 소비자가 약에관한 내용을 올바로 알게 해야한다。』

각정부는 필수약품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별로 특유한 약초와 대용약을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는약을 생산토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주최「소비자보호에관한 지역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미심장한 10개항 결의내용 가운데 일부다。

방콕에서 열린 동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및 중공등 15개국의 대표가 참가 (6월1일~8일)했는데 범람하는 약품의 홍수속에서도 건강은 하나도 개선되지않는 문제에관한 대책토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세계 1만여개 제약회사중 약품거래의 90%를 독점하는것은 1백개에 불과하다。그 거래액은 1년에 무려 48조달러에 달한다。

先進國 百여업체 寡占
세계 年間去來 48兆弗
3·4천種이 10만種의 상표로 팔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필수약」으로 꼽는것은 2백50종에 불과하다。그런데 3~4천종의 약이 무려 10만종에 달하는 각종상표를 붙이고 거래된다는게 세계보건기구의 추정보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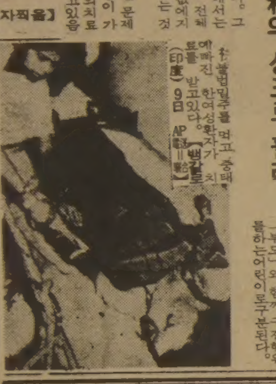
「약은 건강관리에 중요하지만 약자체가 좋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약의 거래량과 사용량은 놀랍게증가하는데도 그에 비례해서 건강이 개선되는 결과를 볼수없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이유의 하나는 제약회사가 소비자의 필요를외면한채 판매촉진에만 힘을 기울여 약을 복용케 한데 있다는것이다。전세계 약품생산의 90%를 선진공업국이 차지하는데도 개발도상국은 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제、중간화합물、지식、기술공업에 있어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그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관리비만 높아져 전체 보건비의 40%가 약값에지출되고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상과같은 심각한 문제의 지적은 약의 범람이 가져오는 역기능이 약의치료 기능을 무색하게 하고있음을 경고한다。국제적 제약회사의 독점과 강요、국내 제약회사의 대량판매촉진술에의해 환자의 약품소비만 늘었지 건강향상은 기대에 따르지 못한다。정부단위론 국가별 필수약을개발지정하고 소비자(환자)의 눈을가리는 의사의、외국어처방、약품명의 외국어 표시를 모국어로 바꾸자는「결의내용」은 소비자 건강을 위한 긴급한요구다。【外電綜合】

印度에 최악의 密酒中毒사건

3백여명숨지고 百명重態
값싸고독해 農民들이즐겨



불법밀주를 먹고 중태에빠진 한여성환자가 치료를 받고있다。【뱅갈로르(印度) 9日 AP電=聯合】

인도남부도시 뱅갈로르에서 인도사상 최악의 불법밀주집단 중독사건이 발생、3백17명 (9일밤 현재)이 죽었고 1백여명이 위독한상태여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제의 밀주는 蛇毒이란 뜻을 가진「문신」또는「카크치」라는 술로 메틸 변성알콜·나무알콜·나무뿌리·광택나는 동백나무잎등 주로 자극성이강한 물질로 만든다。

불법밀주는 한달에 3백루피(약2만4천5백원)밖에 벌지못하는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들간에 인기가 높다。

시골잔치집에서는 으레 불법밀주가 판을친다。

불법밀주 한병은 8루피(7백원)로 정부허가를 받아 판매하는「진짜술」보다 3분의1이나 싸고 배나 독하다。

불법밀주업자들은 정부술에는 산아제한을 위한 물질이 섞여있다고 루머를퍼뜨리고 있다。정부는 공식으로 이를 부인해 오지만 루머를믿는 사람도 많다。

지난 78년에는 동부비하르주에서 1백50명이나 중독사하는 참사가 있었다。【뉴델리=聯合】

거지王國 스페인 하루收入 2만원

【마드리드UPI=聯合】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빠지지않는게 거지들。인구 4백만의 마드리드에는 엄청난 수의 거지들이 들끓고있다。

지난75년 프랑코총통사후 스페인의 실업률이 5%에서 서구최고수준인 14%로 급증하면서 거지수도 그만큼늘었다。

거지들은 하루평균 수입이 3천페세타 (약2만2천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나라의 하루 최저임금 8백70페세타(6천3백원)의 3배 이상이며 대학교수의 수입보다 50%가 많은 액수이다。

최근들어 거지、특히 어린이거지들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혼자구걸행위를하는 아이와「부모」와 함께 구걸행위를하는어린이로구분된다。

記者의 눈

편치못한 판초·빌라銅像

멕시코「농민의아버지」요「혁명의 영웅」으로추앙받는 판초·빌라의 동상이얼마전 미국땅에세워졌다。

장소는 앨라조나州 투스콘市의 산페드로공원—멕시코국경이 빤히 내려다보이는산기슭이다。멕시코정부와 언론인협회가 기증한 이동상은 우정의 표시로 애리조나州정부에 기증한 것이었다。

높이 4m에 무게가5톤이 넘는 거대한 이동상은 말을탄 판초·빌라가 멕시코농민군을 지휘하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

이 동상이 제막되던날은 열광과 환호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이었다。일부 시민들은 판초·빌라가 무고한 투스콘시민을 살육한 살인자라며 동상제막을 격렬히 반대했다。류·머피 시장도 동상건립을 결정한 배비트앨리조나州知事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며 제막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판초·빌라 한사람을 두고 영웅과 살인자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건 그의 풍운아다운 생애와 관계가 깊다。

멕시코 소작인 아들로 태어난 판초·빌라는 소년시절에 지주를 죽이고 도망생활을 시작한다。35년에 걸친 디아즈 독재정권을 타도한 1911년의「멕시코혁명」에서 판초·빌라는 혁명의 제1공신이자 농민의 우상이 된다。지난67년 멕시코정부는 판초·빌라에게「혁명영웅」의 칭호를 부여했고 다른4명의 혁명영웅과 함께 멕시코혁명기념관에 안치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政敵 카란사의정권에 대항、북부 멕시코지방에서 농민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위해 미국땅에 越境、많은 미국양민을 정략적으로 살해한 기록을 남겼다。판초·빌라는 카란사의 멕시코정부군과 윌슨美대통령이 파견한 퍼싱장군휘하 미군의 협공속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동상이 제막된 산 페드로 공원에서 그는 1915년 74명의 투스콘시민을 학살했다。

그때 학살당한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있는 투스콘이므로 그의 동상은 서있으면서도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한風雲兒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수 있다。판초·빌라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멕시코인이나 살인자로 규탄하는 투스콘시민이나 모두 타당한 論據를 가지고 있다。【李炳圭기자·外信部】

十字春秋

덫과 허수아비

金烈圭

서울에서 일류 운전사가 되자면 세단계를거쳐야 한다。

첫째、「우선멈춤」을 정확하게 지킨다。

둘째、주뼛주뼛하면서「우선멈춤」선을 지나가 버린다。

세째、홀부 듯이 수박 밀듯、거침없이 지나쳐버린다。

그러저러 10년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고는 있으나 필자는 아직도 이류를 못 면하고 있다。첫째와 둘째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정확하게는 이류반이라고 하는 게 옳겠다。일류가 될 자신은 아직은 없다。

얘기는 사뭇 삼류지대를 헤매고 있을때로 거슬러 올라 간다。

내 차 뒤를 영업차가 따르고 있었다。처음「우선멈춤」에 섰을 때 그 영업차 운전사는 전조등을 신경질적으로 깜박거렸다。두번째 멈었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요란하게 경적을울렸다。

그래도 이 삼류 운전사는 미련스레 세번째「우선멈춤」앞에서도 차를 세웠다。순간 이 새 옆을 지나치며 일류가 소리쳤다。

『자식/ 네 혼자 지켜 처먹어라』

그가『지켜 처먹어라』고 한것은 말할 나위없이 교통법규다。그 뒤부터 불행히 필자는『완전히 못처먹는』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사실 지키자니 멍청스럽고 안 지키자니 답답스러운게 서울의「우선멈춤」이다。열에 아홉까지는 무시당하는「우선멈춤」은 왜 세워둔 것일까。그것은 거리의〈허수아비〉가 된지오래다。차량들은 약은 참새가 허수아비를 깔보듯 그 곁을 초라니 꼬리를 흔들며 달아난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것이〈덫〉으로 둔갑할 때가 있다。저만치에 반쯤 숨어서 교통순경이 단속을 할 때면 차량들은 대중없는 토끼가 덫에 걸리듯 꼼짝없이 옭여든다。더러는 그것을〈쥐덫〉이라고 도 한다든가?

지키게 할 수 없는 것을 요량도 없이 세운것과 지켜야 할 것을 마구 넘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작은 법이나마 덫과 허수아비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해선 안되겠다。단속기간에 붙여 한마디 한다。

〈西江大 敎授〉

文豪의 名言

夏目漱石
<1867~1916>

<自畫像>

日本近代최대의 文豪。本名金之助(긴노스께) 東京生,東大졸업후' 松山中 五高교사역임。明治33년 英國유학후 東大강사。朝日新聞에도 관여했음。明治38년「나는고양이다」로일약 文名을 높였다。

산길을 오르며 이렇게 생각했다。智가 승한즉 모가난다。情에 흐르면 흘어진다。이치만을 내세우면 답답하다。여하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살기 힘든것이 심해지면 편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어디로 옮겨가도 역시 살기 힘든다는걸 깨달을때 비로소 詩가 생기고 그림이 나온다。

× × × ×

소설 草枕(구사마꾸라)의 모두。

삶의 苦難을 깨달을때 藝術이 생긴다

明治38년「나는 고양이다」에서 부터 大正5년의 大作 明暗(메이앙)에 이르기까지 漱石가 小說家로 활동한 12년간은 露日전쟁 종반에서 1차大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일본사회 일반의 近代化에의 진전이 눈에띄는 반면、민중일반의 自由는 근본적으로 강하게경색된때였다。때문에 그때文學의 가장 근본적 제목은「어떻게 살것인가」란 것으로 그렇게해서 구해진 生의 方向의 多樣함이다。당시의 文學을 복잡하게 分化、소오세끼도 그 일익을 담당했다 할 수 있다。

소설「도련님」은이의 분개를 마음속깊이 간직한 반항적 성격을 가졌고「草枕」(구사마꾸라)이 絶望과 現實 혐오를 母胎로 한 도피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그같은 時代의 反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低徊派、餘裕派、俳諧派(하이까이)新浪漫派등 여러가지로 불리며 低徊派的인것을 끝까지 간직했던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고양이」「도련님」「草枕」으로부터「三四郎」(산시로오)을 거쳐「마음」(고꼬로)으로 나간 소오세끼작품의 年譜는 하나의 有機的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이를 通讀하면 한편의 長篇小說을 읽는것같은 재미를 맛볼수있다。

그러나 반면 탈피에서 탈피로의 변모의 격렬함이 느껴지며、작자의 苦惱에서 諦觀的경지에의 道程이 말해져 있는것도 충분히 느낄수가 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출품마감 사진대회

지난 6월6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사진촬영대회 작품 출품이 오는 15일 마감됩니다.

마감일 : 81년7월15일
제출처 : 본사(1025 DUPONT ST. TOR.)
(1025 DUPONT ST. TOR.)
새한칼라현상소
(630 BLOOR ST. W.)
킹스카메라
(619 BLOOR ST. W.)
출품종목 : 흑백, 칼라
8"×10" 이상
스라이드
(135mm 120mm)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광고를 하시기

경기가 침체할수록 광고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비용은 절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광고 매체를 언제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제공
광고문의 : 533-2361

PIONEER
CAR+HOME
STER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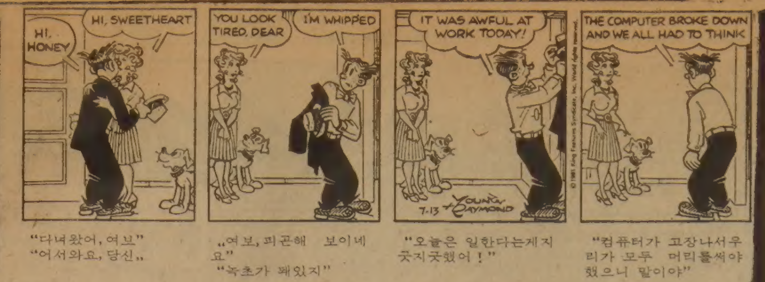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다녀왔어, 여보" "어서와요, 당신"

"여보, 피곤해 보이네요" "녹초가 돼있지"

"오늘은 일한다는게지 긋지긋했어!"

"컴퓨터가 고장나서우리가 모두 머리를써야 했으니 말이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龜尾工團 淨化시설도 없이
10년째 洛東江에 폐수放流
食水오염·물고기 자취감춰

【龜尾】경북龜尾市에 폐수종합처리시설이 없어 공단내 2백9개업체에서 버리는 산업 폐수와 12만명의 주민이 버리는 생활오수등 하루 2만여 t의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식수오염뿐만아니라 주변하천의 생태계를 파괴, 민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기까지 하고있다.

龜尾공단의 경우 지난 72년 첫가동을 하면서 아무런 정화시설없이 10년째·각종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최근 2백85개업체에서 매일 3만 t의 폐수를 2개배수로를 통해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고있으나 자체폐수처리시설을 갖춘업체는 16개업체뿐으로 1만t만이 정화처리되고 있을뿐이다.

또한 2만여가구 12만명의 시민들이 버리는 오물이 시내중심가를 흐르는 금오천과 구미천·부곡천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약1km떨어져있는 龜尾시상수도 수원을 더럽히고 있다.

龜尾시는 이에대해 오는86년까지 하루21만t의 폐수를 처리할수있는 대규모정화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昭陽江댐 최고水位
담수 8년만에 191m넘어

【春川=聯】昭陽江다목적댐이 지난 72년11월 담수이후 8년 8개월만에 만수위에 육박, 11일 새벽4시현재 1백91.89m까지 물이 차 올라 최고수위를 기록했다. 昭陽江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같은 기록은 만수위 1백93.5m에 1.61m를 남긴것으로 80년9월26일의 최고기록 1백90.26m를 1.63m나 경신한것.

昭陽江댐은 최고수위기록과 함께 담수면적도 62.5평방km나돼 댐 수문을 넘쳤때의 홍수저수면적인 70평방km(수위 1백98m)에 거의육박하고있다. 또 담수량도 만수위때의 29억톤에서 약5억톤이 모자란24억3천9백10만톤이나됐다.

地方短信

계룡국교 책읽기運動성과

충남 公州郡내 계룡국민학교(교장 박병진)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에게 책읽기운동을벌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있다.

한편, 이학교 육성회 부회장 이시웅씨는 책읽기운동을 돕기위해 3만원을 양서구입비로 회사했다. 【公州】

죽어가는 級友살리기 캠페인

君子中 金大植군 病名알고도 속수무책
學友들 치료비 千萬원중 3百萬원모금

치료비가없어 죽어가는 학우를 살리자는운동이 경기도 始興郡 君子面 去于里·君子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君子중학교학생 1천6백여명은 현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비가없어 죽음만을 기다리고있는 金大植(14·1학년1반)의 목숨을구하기위해 성금모금운동에 나섰다.

한번 코피를 쏟기시작하면 며칠씩 사경을헤매다 되살아나는 金군의 병명은「선천성동맥폐쇄부전증」 및「후천성심실중상결손증」.

京畿道始興郡秀岩面下中里 338 남의집 방한칸을 50만원에 세들어 사는 金군의 아버지 金성춘씨(34)는 장남인 金군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행상을하다가 그것마저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이없어 金군을 살릴 방도가 없었다.

金씨는 생각다 못해 전세금 50만원을 빼가지고 큰병원을 찾아 다니느라고 몽땅 써버려 金군을 살리기는커녕 일가족 4명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金씨는 이같은 역경속에서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굴하지않고 지난달 26일 세브란스병원에 찾아가 金군의 병명을 알아내는데 성공, 53동581호실에 입원 시켜우선 1차수술을 받게 했다.

이같은 사실이 학우들에게 알려지자 학생회장 尹와烈군(16·3학년3반)을 비롯한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성금을 내놓기시작 1백86만8백원을 모았고 같은 캠퍼스에 있는 君子종합고등학교 7백여명의 학생들도 69만7천4백50원을 모으게 됐다.

그러나 金군이 회복되기까지는 입원·치료비가 1천여만원이나 필요해 부족한 7백여만원을 마련할길이 없어 학생들은 애태우고 있다.

李在熙교감(46)은『金군은 국민학교때 줄곧 반장을 지낸 우수학생일 뿐만아니라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미술실기대회·음악경연대회·글짓기대회·웅변대회등에서 상장을휩쓸어온 영리한 학생이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하고『부족한 입원·치료비 7백만원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안타까와 하고있다. 【安養=聯】

張吉山 (1609)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彌勒逆謀 第一章 (69)

『공수원에서 구월산 오는 안전한 길을 가르쳐 드렸던 중이오. 그때 우두령과, 송도 산다는 이가 같이 있었지요.』

여환이 새삼스럽지만 길산의 묵은 기억을 깨우쳐 주느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길산은 생각이나는 모양이었다.

『아… 내가 어째서 그걸 잊었던고. 해주 어느 암자에 계시다구 하셨지요.』

길산은 저도 모르게 묘옥의 해사한 얼굴이 떠올라와서 뭐라고 얘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미 퇴색해버린 얘기가 아니던가. 자신의 아낙을 자처하며 대사수의 참수형이 끝난 관문 밖을 헤매던 창기 묘옥, 그리고는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 죽은영혼을 달래는 기도를 드렸고 여환은 그런 얘기를 공수원에서 전해주지 않았던가. 길산은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여환의 시선을 피하였다.

『참, 오래된 일이오. 세월은 유수가 아니라 저녁구름처럼 덧없지요.』

여환은 이경순이가 고개를 떨구고 버선코에 시선을 박고 있음을 흘낏 돌아보았다.

『강산이 삼천리라 하나, 길은 하나요, 물은 모이기 마련인 듯하오.』

우대용은 여환과 길산의 사이에 무슨 의사가 오가는지 알법도 하건만, 못의용총출 같이 굵다란 사내의 신경으로 그런 자잘하고 미세한 심리사를 어찌 알겠는가. 여환이만이 이경순과 길산의 가슴 가운데 일고 있을 작은 파문들을 가늠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이 되어 길산은 안부당때문에 월정사로 다시 내려왔고, 옥여와 여환이도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오진암을 나섰다. 여환이 빠에 내려서는데 이경순이 슬그머니 따라 나왔다.

『여환당…』

여환은 묵묵히 경순을 돌아보며 그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를 기다리고 서있었다. 경순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머뭇거리며 입을 떼었다.

『장두령에게…알려야겠지요?』

여환은 침묵하였다.

『내 아내가… 그와 한 마음 사람이오. 나는 알고… 그사람은 모르고있어서…』

이경순이 말을 끝맺지 못하는데 여환은 잠시 기다렸다가 나직하게 되물었다.

『알려야 될까요? 자연히 알게될 것입니다』

『부탁이오 여환당이 넌지시 일러주시오.』

여환은 그의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었으되, 무심한듯 말하였다.

『시대(四大)가 티끌처럼 흩어질 터인즉, 잊으시지요. 오진암에 회향하는 뜻을 잘아실테지요』

『잘 알기 때문이요. 나도 어느결에 그 사람과 한통속이 되었구려. 어쩌지 불편하오. 여환당아 그렇게해주는게 좋가분하겠구려』

『그러지요』

이경순을 어둠속에 남겨두고 여환은 앞서간 옥여를 부지런히 따라갔다. 옥여는 길모퉁이에서 여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세(浮世)의 업연(業緣)이 또한 뒤엉킨 가시덤불과 같도다』

여환이 밑도 끝도 없이 중얼거리며 내려오자 옥여가 껄껄 웃었다.

『가시가 아니라 유황불이라두 장가는 들어야지. 자네 중노릇하기는 기왕에 틀렸고』

『어허 이런 마군의 찌끄러기를 봤나』

여환은 옥여의 농을 털어내놓으라고 허를 차며 핀잔하였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2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2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도나스 샾에서 주중이나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카운터 헬퍼
☎ : 284-9325 스카브로지역

입주하셔서 베이비 씨터 하실분 구함
☎ : 763-7450 미세스 김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학생 헬퍼 구함
☎ : 267-4770

집안일 돌보실 독신녀 원함
ST. CLAIR & AVENUE RD. 에 위치
아파트+봉급 줌. 부엌일 없고 영어 필요없음.
CALL ☎ : 481-1355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CALL MANAGER(오후3시~6시 연락)
☎ : 977-9519
MASA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김 대 성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빌딩과 비즈네스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368-5980, 633-052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 스토어 급매 : (코너스토어)
주매상 1만2천이상, 가격19만 달러
161 WITHROW AVE. (AT LOGAN) 토론토

포터블) 세탁기 2년
엑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FIRE PIT햄버거식당
주매상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
렌트170, 현찰3만불 요함 순이익 8천불
1-705-748-9722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신사, 숙녀분들의 매니지먼트 훈련을 곧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립니다.
실패의 기록이 없는 N. Y. S. E. (New York Stock Exchange)를 대표한 부동산 기업체에서 $35,000~$75,000+매니지먼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기업체에서는 1980년도의 세일즈 쿠오타에서 6개월만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읍니다. 여러분중에 소망과 결단력, 투지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기업체에서 성공 하실수 있읍니다.
매니지먼트 훈련은 프로리다에서 6주동안 있겠읍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 일년의 봉급은 약$20,000이 되겠고 부동산 면허증을 꼭 가지신 분에 한합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 : 661-1625 H. FRIENDLY CAN-AM ESTATE LTD. REAL EATATE BROKER에게 이에 대한 취지서(#OAI 505-81)를 부탁하셔서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705) 325-6039 IRVEN DEGRAW
WALTER DEAN REAL ESTATE LTD.,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팁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439-6277 박 ,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3, 255-8301 (R) 252-2963 MR. 오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나라운수
피아노, 쿨러 ☎ : 630-66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8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패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8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기 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